

금지일언 욕심스런 태도를 짓지 말고 정도를 생각하여 비로서 말하며 마음에 탐하고 사랑함이 없으면 반드시 번뇌를 끊고 건너간다.
(법구경·호회품 322절)

東大新聞

발행인: 송정고이길
편집장: 송정고이길
주필: 송정고이길
편집: 송정고이길
주소: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복궁주식회 707 ☎(0561)770-2057

제 1228 호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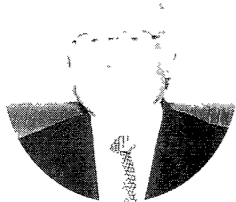
199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7년(불기2541년) 8월 25일 (월요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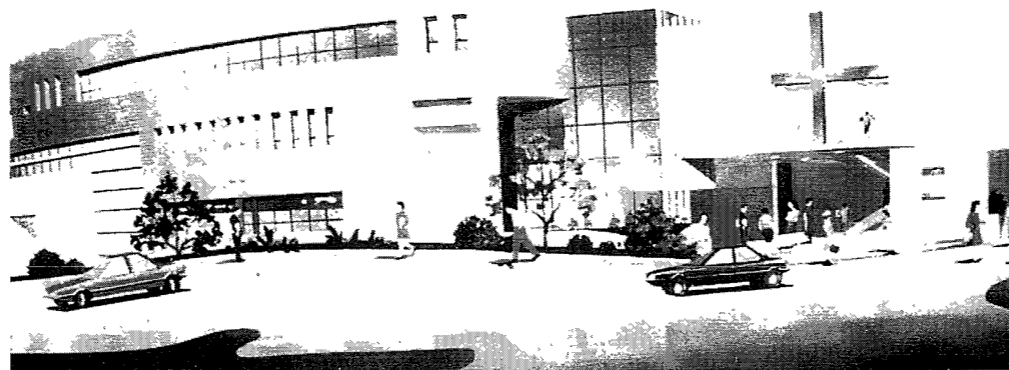
전 외무 장관 공로명 석좌교수임명



공로명 전 외무장관이 지난 19일 본교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1968년부터 외무부에 몸담은 공로명 교수는 아주국장, 주러시아 대사, 주일본대사를 거쳐 199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는 통일고문회의 고문직을 맡고 있다.
공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1년간 사회과학대 아시아지역학부 학생들에게 아시아지역학과 한국 간의 정치적 관계 및 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송석구 총장으로부터 석좌교수 제의를 받은 공교수는 "지난 38년간 외교실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성의것 강의를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정보 매체 센터 건립 '첫 삽'

내년 9월 완공 예정... 행정 편의와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일조



◇ 위 사진은 완공될 정보매체센터의 조망도이다.

정보매체센터 기공식이 지난 19일 오후 2시에 현 역경원 및 공대농구장 자리에서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김동일 중구청장을 비롯한 학교 내외 반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례 △이범산 스님의 축원 △경과보고 △오복원 이사장의 축사 △송석구 총장의 식사 △합창 △기공 시삽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에서는 △지난 5월28일-주식회사 간성종합설계사무소의 설계착수 △6월 28일부터 7월 16일-건축계획 및 남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통과 △7월 25일부터 지난 8일-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및 건축허가 등의 과정이 발표됐다.
지하2층에 지상3층으로 지어질 정보매체센터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내년 9월 중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창진 시설과 과장은 "정보매체센터가 지어지면 정보산업과학대학과 중

합행정민원실이 위치해 모든 증명서 발급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험실, 강의실 등의 확충으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기공식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과학관 뒷편에 식당 및 휴게실 등 이용될 지하층, 지상 3층 규모의

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기공식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과학관 뒷편에 식당 및 휴게실 등 이용될 지하층, 지상 3층 규모의

틀비나관(가칭)은 기공식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리수

사람이든 자연이든 그 자리가 있다. 저마다 있어 왔고 그렇게 있어 할 본래의 자리이다. 본래의 제자리를 돌아갑, 이를 불교에서는 환귀본체라고 말한다. 흔히 죽음을 그렇게 답답하고 적의하게 표현하지만, 이리저리 내달고 경황없이 내몰리며 일상 속에도 본래, 본래의 제자리는 있게 마련이다.

제자리 찾기

국민이라면 오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을까. 대선 주자 고르기가 온통 유희와 소란속에 치러졌다. 이내 여당 대선주자 이드님의 몸무게가 연일 뜨거워지는 이유로 달아오르더니, 지금은 딱히 정치인들의 소모적인 색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사실상 만큼 보아 온 정치는 그렇다 치자.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에 이어 이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대기업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서도, 여불휴가와 행락의 대이동은 마치 엑스더스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고속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면서도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끊임없이 물러가고 물러오곤했다. 인간의 모진 자연을 더럽히고 못살게 굴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휴식과 인위를 얻고 돌아오는 것일까. 그 와중에 2백 몇십명의 소중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버린 항공 사고의 비보는 가장 처참한 재앙이었다. 지난 여름은 그래서 더욱 뜨겁고 숨이 막히고 참담했다.
캠퍼스는 긴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이들로 다시 활기가 넘친다. 그들이 보낸 지난 여름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마다 자신을 더욱 성숙케 할 각기 다른 경험과 상념들을 안고 돌아왔지만,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지금은 자기 내면의 트랙을 가꾸며 풍성하게 맞이할 가을을 준비할 때이다. 이제 지난 여름 한껏 달아올랐던 유희와 감광과 들뜬을 식히고 파도에 휩쓸려다 헤쳐버린 자아를 다시 소중하게 챙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본래의 제자리는 모든 존재를 가장 근접하게 해줄 수 있는 아늑한 대지이자 곧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봉춘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9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석·박사등 총4백50여명 배출

'9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중앙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안재관 이사 등의 내외 인사와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 대학원 석사 39명,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8명, 관리자과정 2명 △산업기술 환경대학원 석사 13명, 관리자과정 4명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10명, 지도자과정 3명 등 총 4백45명이다.

△대학원 박사 45명, 석사 1백15명 △불교대학원 석사 14명, 지도자과정 46명 △행정대학원 석사 39명, 관리자과정 25명, 연구과정 1명 △경영대학원 석사 22명, 최고경영자 33명 △교무대학원 석사 39명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8명, 관리자과정 2명 △산업기술 환경대학원 석사 13명, 관리자과정 4명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10명, 지도자과정 3명 등 총 4백45명이다.

서울캠 총학, 비대위 결성

총·부총학생회장 지난 12일 연행대

서울캠 제29대 총학생회(회장=구장주·야간경영4)가 총·부총학생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회장=유재하·국문4 이하 비대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구장주 총학생회장과 원진욱(사)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6명의 학생이 총학생회실에서 밤 9시 30분경 40여명의 사복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총·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훈방되고 총·부

총학생회장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지금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이에 총학생회장의 권한대행으로 박병재 총대위원장이 지난달 28일경 11개 단과대 및 자치기구 등의 대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회의가 진행되었고, 이후엔 문과대 학생회장 유재하군이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돼 비대위가 운영됐다.
비대위는 총·부총학생회장 불법연행

에 대해 항의하여 도서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구속학우 석방' '공안탄압 분쇄' 등의 기치를 걸고 실시했다.
유재하 비대위 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녀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잘 이겨내었다"며 "비대위 체제로 학내외의 일을 학우들의 공감을 얻으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본교, 지역사회 대학으로 자리매김

중구청과 문화·정보 교류 협약 체결

본교(총장=송석구·철학)와 서울특별시 중구청(구청장=김동일)은 지난 달 31일 정보·문화 교류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가진 이번 행사는 △국민회의 △추진경위 발표 △본교 소개 △중구청 소개 △양기관 인사소개 △송석구 총장 인사 △김동일 구청장 인사 △김사중 구의회 부의장 축사 △교류협약서 조인 순으로 치러졌다.
세화화·정보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정보·문화 등 각 분야의 상호인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본교와 중구청의 공동발전과 우호를 증진할 목적으로 체결한 교류협약의 내용은 △정보·문화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복

지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주민 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스타 망기과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등 5개 사항을 중심으로 한 세부 내용들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도서관, 박물관,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여학, 컴퓨터, 시민교육강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고 문화행사 공동 개최와 문화 거리 조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지역 문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교류협약과 관련하여 송석구 총장은 "앞으로 상호 협력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학문의 상이탑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양기관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당국은 지난 7월 1일자로 보직 인사를 발령했다.

인사발령자는 다음과 같다.
◇직원승진 (서울캠퍼스)
△교무처 자료정보계장서리=이경식 △법과대학 교학계장서리=신기훈 △전자계산소 운영계장서리=이국환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교학계장서리=손재영 △이부대학 교학계장서리=황주환 △포항병원 경리계장서리=신대용 △경주한방병원 서무계장서리=김상운 △교무처 교무계장서리=김종진 △교무처 학적계장서리=김근묵
◇부처장급 (서울캠퍼스)
△교육방송국장=신일식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손상진 △교육대학원 교학부장=윤병대

학교, 직원 인사 단행

◇과장급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실 기획과장=이강현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장=김준호 △교무처 교무과장=차준환 △교무처 입학과장=하정은 △교무처 학적과장=김철석 △학생처 취업과장=김병수 △비상계획과장(경직해제)=김종진 △총무처 비상계획과장=차선구 △관리처 관리과장=황유열 △관리처 구매과장=이종석 △사회교육원 교학과장=최창호 △이부대학 교학과장=안준옥 △동국인간한방병원 서무과장=송부자 (경주캠퍼스)
△학생처 장학과장=정성호 △학생처 취업과장=김근수 △사무처 경리과장=신봉근
◇계장급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계장서리=박

만규 △교무처 수업계장(경직해제)=한문우 △교무처 수업계장=황의돈 △자료정보계장(경직해제)=윤동규 △교무처 학적계장=이광구 △언론정보대학원 교학계장=이우용 △이부대학 교학계장=문용주 △과학관 관리계장=김중성 △사법대학 교학계장=김종택 (경주캠퍼스)
△교무처 교무계장(경직해제)=박두관 △학생처 장학계장=한병모 △사무처 학생복지계장=성일수 △불교문화대학 교학계장=이진희 △상경대 교학계장=정문환 △금융장서관 계장=최정훈
◇직원급 (경주캠퍼스)
△교무처 입학과=김원준 △사무처 관재과=김영기 △학생처 학생과=노동영 △1백주년기념사업본부=김종규

총동창회, 동우 장학금 전달

20여명에게 2천만원 지급

본교 총동창회(회장=황명수) 동우 장학회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 교무회의실에서 재학생 20명(서울캠 12명, 경주캠 8명)에게 각 1백만원씩의 동우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혜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 양동민(국문3), 김근욱(수4), 김명환(법3), 박해철(사학3), 문정훈(사학3), 오위택(국고3), 유영남(미술3), 오수미(경상2), 김형진(신법2), 양경아(공학2), 조문기(경상2), 이상호(정보산업대학원 4학기 이상 12명), △경주캠퍼스 = 정석운(불교2), 강보영(의학2), 주선희(관경2), 김수경(한문3), 김종원(조경3), 김성수(행정2), 홍경애(경제3), 공명국(한외1) 이상 8명, 총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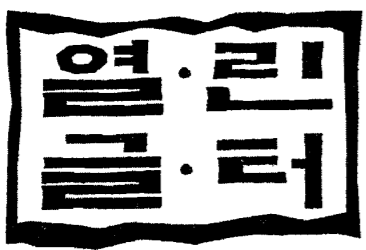
본사사령

- ◇임차장
▲취재1차장 = 최정식 (문과대 독어독문2)
▲취재2차장 = 이해경 (상경대 관광경영2)
▲사회1차장 = 김용환 (사과대 신문방송2)
▲사회2차장 겸 사진1차장 = 오인택 (사과대 신문방송2)
▲문화차장 = 최진 (생지대 생명자원2)
- ◇의면직
▲심미선(문과대 영어영문과) (이상 8월 25일자)

동대신문 기획광고

동대신문이 9월 1일부터 새롭게 태어납니다.

첫째, 정보의 집중성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나가기 위해 기존의 면체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동대신문은 1면-종합보도, 2면-학내보도, 경주보도, 3면-해설, 4면-사회, 5면-기획, 6면-문화, 7면-문화2, 8면-여론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서체를 키우고 장평과 자간을 재조정했습니다. 기존의 본문서체가 10.75, 장평8.0, 자간-20, 행간 12.25이었음에 비해 변화된 서체는 크기 11포인트, 장평 8.0, 자간 13, 행간 13.265, 단락포맷 0.33으로 지면이 훨씬 시원해 보입니다.
셋째, 주간지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행사위주의 기사에서 기획과 해설기사 중심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의는 (02)260-3491 · 2 (0661)770-2057 · 8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하이텔 (DGU9번방, ID:dgpress 메일)과 여론팀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8박 9일간의 농활로 농촌 현실 몸소 느껴

지난 6월30일 동국문화회에 있는 나는 문화회, 민족사연구회, 달, 아리랑 네 동아리는 농활대에 합류해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로 갔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새로운 생활 앞에선 나의 마음만큼이나 요란스럽게 덜컹 거렸다. 마을의 노인정에 여장을 풀고 조를 나누어 집집마다 인사를 다니는 것으로 제천에서의 첫 밤을 맞았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장마가 시작되었고 작업 첫 날부터 힘들지는 않았지만 빗 속에서 농사일을 배워갔다. 활산리는 오이, 담배, 고추농사를 많이 지어 일은 대개 오이, 담배일을 따고 고추나무 채우고 묶어주는 것 등이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일을 익히면서 배운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하는 오이 하나가 소비자의 손까지 가기위해선 매일 결산을 잘라주는 번거로움과 오이를 따서 포장할때까지도 신선도 때문에 가시를 다치지 않게 잡아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일하면서 들은 농민분들의 이야기도 반성의 기회와 함께 농촌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었다.

한 번은 한 아주머니께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전래하여 그나마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담배농사를 허리가

아파서 못짓는다며 몇 년후면 이득없는 벼농사도 완전히 안 지을 거라며 한숨을 쉬었다. 또한 시내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 딸 걱정도 한시름이었다. 이러한 빈약한 문화적 혜택과 시장개방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는 농촌현실 속에서도 뿌리를 지키는 거머쥔 농사짓는 것만이 한 농민부의 말씀은 고민과 함께 든든함을 던져 주었다.

작업 후 저녁에는 분반활동을 했다. 아담반, 청소년반, 여농반, 청장년반으로 나뉘었는데 내가 있던 청장년반에서는 붓도 목걸이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다. 청장년반 이외에도 여농반, 청소년반, 아담반도 처음엔 관심이 없었지만 농활 기간동안 동네사람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농민분들과의 생활만큼 농활대 안의 생활도 중요했다. 작업이 끝나면 지친 몸으로 작업 평가시간을 가졌고 분반활동 후 가지는 전체평가시간에는 졸음을 참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땀땀한 일정 속에서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낯설던 타동아리 사람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다.

7일째 되는 날은 제천의 농활대 학생들과 농민분들이 모여 빗 속에서도 체육대회를 잘 치루어 냈고 떠나기 전날 밤엔 폐지머리를 놓고 축문을 읽으며 달의 마당극과 이리랑의 노래와 함께 막걸리와 고기냄새 자욱한 마을 잔치가 무르익어 갔다. 동네 아

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의 어깨춤이 흥겨웠다. 마지막날 오전 작업을 한 후 짐을 꾸려 트럭에 올랐다. 활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학생들은 일찍내고 숙소에 돌아와 따뜻한 옷을 입은 기운을 아쉬워하며 앉았다. 시내에서 농산물 가격보정에 대한 집회를 가진 후 제천을 떠났다. 누군가 담배새와 인정이 그리고 또 그것이 자기 삶으로 느껴질까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농활을 가보라고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한 아진 <문과대 인문학부>

유럽배낭여행 통해 한국 선진국 도약 기대할 터

마지막 여름 방학의 뜻깊은 추억이 된 유럽배낭여행을 지난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18박 19일동안 다녀왔다. 한 편만 꾸러가 드디어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도 아주 저렴한 경비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프랑크푸르트(독일)를 시작으로 파리(프랑스)-취리히(스위스)-루체른(스위스)-로마(이탈리아)-베네치아(이탈리아)-인스브루크(오스트리아)-뉘른(독일)-뮌헨(독일)-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비엔나(오스트리아)-부다페스트(헝가리)-프라하(체코)-비엔나 공항의 땀땀한 일정이었다.

동유럽 몇 나라를 제외한 유럽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라 생활하는 데 많이 여유로워 보이고 친절하고 넉넉한 생활을 즐긴다는 인상을 받았다. 섬세하면서도 화려하고 멋있는 노신사 부부, 개방적인 성문화 (예를 들면 여성들의 과감한 노출, 장소불문하고 영화(?)적 장면 연출)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 관광객들의 소풍을 유혹하는 도시의 중심가, 유명 관광

지, 전위적 분위기의 아담하고 예쁜 집 등 볼거리가 다양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시월하고 순한 때추와 구운 흰 소시지 맛을 잊을 수 없는 독일과 깨끗하고 조용하고 여름에 눈을 보게해 준 오스트리아, 아담하면서 선진국으로서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스위스이다. 그네들과 부딪치면서 느낀 점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수계산에 있어 무척이나 서툴렀다. 유럽에서 무엇보다도 생각나게 한 것은 가족보다는 썰방, 고추장, 김치, 떡볶이였다. 거의 행판으로 때우는 유럽인의 식사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단체여행이라 시간협수가 중요했는데 여행 수 없이 한 명의 일행을 때어놓고 출발할 적이 있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지하 주차장에서 헤어져 지상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분이 지하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엔 마피오아로 인도되어서 경찰서 신세까지 짓다가 며칠 후에 상봉하는 사건이 있었다.

유럽을 다니면서 가장 바라고 싶은 것은 한국이 빨리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88올림픽을 치렀었지만 한국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인이라 설움을 받기도 했다. 한국이 선진국을 향해 가기 위해 서는 젊은이들이 깨어있어야 했다. 거기에 우리 동국인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영미 <자연과학대 가정교육>

조기교육 캠프 다녀온후 삶의 고마움 되새겨

내가 봉사한 곳은 하삼복지관의 조기교육실이었다. 그곳에는 지혜, 다운중후군, 뇌성마비, 지능발달, 언어장애 등의 문제를 보이는 3살에서 7살까지의 아이들이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적응교육을 받는 곳이었다. 내가 맡은 분야는 용인 에버랜드의 통나무 야영장으로 가는 '조기교육 여름캠프' 지원 봉사였다.

그곳의 아이들은 여느 3살에서 7살 아이들과는 달리 옆에 보조자가 있어 아지랑이 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아이당 한 사람의 보조자가 필요했다. 직접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생활을 한 뒤에야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장애아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 것인지 이따금씩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과 생활을 한 뒤에야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장애아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 것인지 이따금씩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표현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생각하는 방법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기에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장애는 나도 모르게 그저 불쌍하다곤 생각했던 것은 단지 친절을 가정한 동정심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새삼 깨달은 것이다. 느꼈던 것을 잘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금방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담당 보조자가 누구인지도 알아 "선생님! 선생님!"이라 부르며 손을 꼭 잡고 다녔다. 아이들이 보조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없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의 손을 잡고 생활을 해야 했다. 아이들의 행동과 표정을 살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기나긴 일정은 아니었지만 나 이외의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처럼 신경을 써야 했다. 내가 맡은 아이도 예외는 아니어서 때를 잘 부여 유치원에서 별명인 '뽕쟁이'인 자폐증상이 있는 아이였다. 캠프가 끝날 때쯤 처음에는 서로 손잡고 싶어하던 뽕쟁이가 나에게 다가와서 누가 뭐라하지 않았는데 나를 꼭 붙어 안았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기쁜 것을 봐도 슬픈 것을 봐도 무서운 것을 봐도 얼굴에 좀처럼 표정을 짓지 않은 아이가 얼굴에 생글생글 환한 미소를 띄고 내 캠프를 꼭 끌어 안고 있었다.

캠프를 다녀온 후 나는 거창한 감명을 받거나 큰 교훈을 얻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그 환한 미소와 예뻐보이는 것을 때 교육실 원장님께서 해주신 '세 생명이 감동하기 이전엔 아이의 생명을 놓고 말하지 말라'고 충고해 준 말을 듣고 울기까지 했다. 아이를 돌보며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부모님과 내가 앞으로 키울 자식을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더욱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캠프를 가면서 "가서 아이들이 속삭이고 일을 많이 저지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의 말을 하던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나를 이리하면 너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거야"라는 엄마의 충고와 앞으로의 삶은 더욱 뜻있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번 봉사활동을 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다.

양혜유 <문과대 영어영문>

진정한 봉사활동은 친구같은 마음이 필요

손짓사랑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연화원은 항상 나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는 곳이다. 봉사라는 것을 처음하는 도움을 받을 수 약간 아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 것인지 이따금씩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과 생활을 한 뒤에야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장애아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 것인지 이따금씩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동/문/칼럼

중요성과 긴급성

실천적 삶 시작하겠다는 의지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의 논점은 긴급성과 중요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긴급한 것을 찾아다니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여 중요성은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나무는 가만히 있고 자 하나 바람이 가만 두지 않는다'며 응급상황 대처를 강조하며 '수유정어불부지(樹靜而風飄)'라는 말은 우리 역사의 청년학생들에게 합당한 교언일 것이다.

4 · 19, 6 · 3, 5 · 18, 6 · 10 등 숫자로 표기되는 굴곡진 역사 고비마다 그 긴급한 역사의 요철에 눈감을 틈을도 있었을까. 그래서 불끈 나서는 그 사람의 말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긴급성과 중요성은 화해할 수 없는 대립항일까? 나는 여기서 논리학적 언어의

유위를 할 마음도 없고 시비를 걸 생각은 더더욱 없다. 두 개념은 연동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혹은 상호 내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개념은 살아있는 우리 현실을 생생히 분석하는데는 우리 유용한 개념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는 청년학생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그럴 듯하게나마 보여줄 수 있었는 생각 때문이다.

중요성이 긴급성에 종속적 지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한국 사회의 역관계 때문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과부하, 한층원호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이 만사지탄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이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나무의 안정한 일상을 벗어나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청년 학생의 과부하를 벗겨주고 중요성이 긴급성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불공정거래일 뿐이다.

선배로서의 교언(告言) 나의 실천적 삶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백대진 <문과대 9학·한국주목은행 노동조합 정책위원회장>

노키 표현의 자유

스...다음처럼은 누구일까요? 정답)검찰과 공문

- ▶ 조니랩은 가위손, 공문이는 작두손
- ▶ '표현의 자유'라는 말에서 과연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
- ▶ 나무 버키니 수렁을 킁고 있다.
- ▶ 지우: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경협해본적이 없어서...
- ▶ 난 갈타가 침도 뵈고, 고성방가도 하고, 노상방노도 하고 있다. -이건방총이라고
- ▶ 이승화가 지난번에 왔을 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아세요? 아저씨들 이히.
- ▶ 검찰청 사람들, 쫓겨나고 행동하게 알았지요? 제가 지켜볼게요.
- ▶ 검열에 있어 김대통령의 양팔, 그 건 바로 화공문! 우경할!
- ▶ 그것이 알고싶다. '공문'은 과연 가위손인가?
- ▶ 민화가 아저씨들 힘내세요!
- ▶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다. 아무렇게

나 입은 표현의 자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행동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방언이 아닌 진정한 표현의 자유임을 바라며

- ▶ 사랑의 표현에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종해서는 안되겠지. 올 가을에는 멋진 사람들과 더불어 좀 더 멋진 사랑의 표현을 과감히 해보는 건 어떨까?
- ▶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단,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 ▶ 힘없는 자의 설움도 아픔도...
- ▶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외쳐야 할 공적직인 슬로라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표현을 보장하라'어야 한다.
- ▶ 자본이 텅비어 있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받고 있어 서민인가?
-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목욕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96 STAFF

- ▶ 뜨거운 여름나시라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PRESS-

- ▶ 아르바이트하느라 모두들 수고 많이많이 하셨습니다.

-만노동공

- ▶ 방중에 공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아저씨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 짝!!!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그리고...

- ▶ 사랑하는 신발과, 개강입니다. 파이팅!
- ▶ 동아이어, 흔들리지마라!
- ▶ 함께 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생의 두려움으로 시작한 3월, 이제 또 다시 새로운 9월이 시작되네요. 먼 곳에서 각자의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도 서로를 위해 따뜻한 힘을 잃지 않는 나의 오빠를 사랑합니다.

-OK-

- ▶ 동아이어! 연락 좀 하며 살자.
- ▶ 여주어! 여행가서 많은 것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되세요. 다음번에 같이 가자.
- ▶ 마지막 학기에 힘내서 멋지게 비상하자고. 내 자신에게 파이팅을

■ 8.13-15까지 서을 구조소에서 '공안안압 분쇄와 전조사면 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신 장주형, 진욱이형 더욱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민족운동-

- ▶ 문화! 다시 새학기의 시작이다. 다이어트도, 학교도, 학원도 모두 열심히 하길 바란다. 더욱 멋진 너의 모습 기대한다. 나도 열심히 할테다. 비해서 이만
- ▶ 얼마만이니? 학교로 너희들이 COME BACK 한게 맞아. 총필야, 석영아, 정석아, 성규야 복학 축하하고 이번 개과천선해서 잘 살아보자!

-CINEMA-

- ▶ 규철이형을 비롯한 모든 인문학부 학우 여러분! 새롭게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는 인문학부가 됩시다.

-인문이가

- ▶ Susan, 나 love 너!
- ▶ 개강입니다. 한 학기 동안 신문 많이 읽으세요.

-나

- ▶ 미정이 누나 생일 축하드려요 -교과 신림이

-우리 친구 진준이가 제대했다는

동/악/광/장

다행한 식량		교직원식량	
월	비우스(1,500)	월	돈까스(2,500)
화	오징어볶음(1,300)	화	정식(3,000)
수	계육볶음(1,300)	수	생선까스(2,500)
목	비빔밥(1,200)	목	정식(3,000)
금	닭강정(1,500)	금	정식(3,000)
토	갈래떡(1,200)	토	커피(1,000)

■ 8.13-15까지 서을 구조소에서 '공안안압 분쇄와 전조사면 반대'를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신 장주형, 진욱이형 더욱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 문화! 다시 새학기의 시작이다. 다이어트도, 학교도, 학원도 모두 열심히 하길 바란다. 더욱 멋진 너의 모습 기대한다. 나도 열심히 할테다. 비해서 이만

■ 얼마만이니? 학교로 너희들이 COME BACK 한게 맞아. 총필야, 석영아, 정석아, 성규야 복학 축하하고 이번 개과천선해서 잘 살아보자!

■ 규철이형을 비롯한 모든 인문학부 학우 여러분! 새롭게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는 인문학부가 됩시다.

온방골

■ 현재야, 21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7-

- ▶ 모출목형 석사학위 통과시켜 무지 축하하고요. 빨리 잘가 가도록 하세요.

-시어비

수고하셨습니다

- ▶ 인찬아 전국일주하느라 수고했다. 민수야 2학기 과제 열심히 뛰어나다 잘해라.
- ▶ 더운 날 대밭에 땀나게 뛰어 다니는 신문사 기자 여러분 수고 많이요.
- ▶ 근표야, 선영아 1학기 수고 많았다. 2학기에도 경성D반 잘 부탁해.

열심히 합시다

- ▶ 며칠 남지 않은 방학동안 환상의 트리아가 제일 잘했다. 대출실의 근로 학생들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일해 봅시다.
- ▶ 가금 난 아무 생각없이 산다. 하지만 생각을 한다. 여러분 새 학기에 는 생각도 열심히 학교도 열심히 다닙시다.
- ▶ 경성학부 D반 총원야! 부디 유학 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어디한 번 열심히 살아보게라. 사랑하는 누나도 여기 남아서 अच्छ게 생활하러다.

■ 좋은 친구 정이가

- ▶ 정보산업학과 선배여! 여러방 방학 잘 지냈죠? 새 학기는 우리 모두 잘 삽시다.

-동대에서 가장 멋진 남자

그리고...

- ▶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듯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힘찬 동국인이 됩시다...
- ▶ 이제 또 새학기를 맞이하여 이번 지난 학기처럼 술에 절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공지로 술과 더불어 살자.
- ▶ 개천야! 자랑스런 동태를 둘러본 소감이 어떠냐? 아무쪼록 경주관광 잘 하고 놀다 가길 바라.
- ▶ 친구가 되고픈 친구가
- ▶ 오빠, 오빠의 자기가. 맨날 푸딩만 부리고 말도 듣지 않고 오빠 좋아하냐? 그러는 거니가 이해해주고 앞으로 정말 잘하게. ps. 한 번 필연 안돼!
- ▶ 오빠의 이쁜이가
- ▶ 정민, 은화, 혜영아. 정말 보고 싶었다. 2학기가 시작됐으니 우리 한번 모여 한 잔 하자꾸나.
- ▶ 모여인
- ▶ 애틁아, 잘 지내냐? 연락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Seoul 용한

술수없는 정치가 훌륭한 정치다



유광진
사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요즘 여·야 정치권은 오직 예복사건과 황정엽 파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열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상대방 꼬투리를 들기 신처럼 잡고 늘어져 죽이기 작전을 서슴없이 짜이 가슴을 때린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통하는 상식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이 많은 차이는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인은 잘 알아야 한다.

시사논단 색깔논쟁과 정치권의 추태

서로 상대방이나 하며 진흙탕물을 튀기는 설전은 국민을 정치 또는 정치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위대한 결과로 서로 죽음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오직 예복사건은 분명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천도교 교령을 지냈는가 하면 제 1야당 고문과 평통자문위원을 지냈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이며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이 일복했다는 것은 국가적인 사건이라는 데에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어 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리나 선거전략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의 정치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딱히 짚어 준다. 나라 격에 앞서 여당은 병역문제에 불리고 있던 차 뜻밖의 반격의 호재를 만난 듯 이당 공적에 대한 비난은 하루가 멀다하고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야당은 이에 질세라 역공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정말 국사는 없고 추잡한 권력암투만 있는 것인가.

술직히 오직 예복사건의 경우만 해도 신한 국적이거나 국회의원이나 큰 소리치며 상대방을 나무라기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가 평통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장까지 수여한 전력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되고 국회의원으로서 그를 당고문과 종교분과위원장으로 예우해 왔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었는가.

황정엽 파일의 경우도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이 문제를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닐진대 여·야는 서로 흠집내기에만 급급할 뿐 국민으로 하여금 의혹에 의혹을 더하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정치적으로 해결될 일인가.

병역사비에 황정엽 오종까지 걸쳐 정치는 실종되고 권력쟁탈의 꿈수만 판을 치니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냉소적 행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대선정국이 이런 모양으로 굴러가도 괜찮은 것인가. 객관적 사실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것의 검증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도 없는 설만을 유포해서 의혹을

만들고 증폭시키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도 사회건강을 위해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반세기 전이나 통했던 매카시즘적 악습이 정설의 고착처럼 등장하고 있으니 유치한 작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한심하고 유치한 논의가 매일 신문에서 화려하게 장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정국의 장래는 실로 걱정스럽다고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대통령 후보는 상처뿐인 영광만 있게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진정한 선거과정의 부당 때문에 나라를 위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만약 이대로 간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다. 20세기를 잘 마무리하고 21세기를 활짝 열어야 하는 막중한 국가대사가 앞에 놓여 있는데 상처투성이가 어떻게 이 엄청난 과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지 앞당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제 혼란한 대선정국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권력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 정도(正道)로 권력을 잡지 못하면 그것은 패도(霸道)가 되는 것이며 결코 나라를 위해 유용하지 못하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활력을 주는 정치가 되어야 국민이 진정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본인이 자주 쓰는 말로 결론을 맺겠다.

"가장 훌륭한 정치는 정치적 술수가 없는 정치이다"

사설

면학분위기조성에 박차 가하길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어느새 지나고 2학기 개강을 맞이하였다. 시간의 마디마다 우리는 언제나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날을 준비한다. 방학동안에도 우리 학교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도서관은 방학 내내 학생들의 면학열기로 가득했고, 학교 당국은 통상업무 외에도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보매체센터'를 기공했고, 곧 '뽕비니(가칭)'식당의 기공식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에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그 중에서도 학생 복지를 위한 시설은 특히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학생복지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된 목적성이 뚜렷한 건물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학교가 추진할 여러 건설사업은 모두 이와 같이 개념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교육개혁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본교가 그 선두에 서서 타교들을 이끌었으며, 우리학교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학교발전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제 교육개혁의 성과가 학교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모든 대학에 확산되어, 우리의 '선착의 효'(先着의效)는 서서히 사라질 지경이 되었다.

여기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져서 모처럼의 발전열기를 지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개혁관리팀'을 발족시킨 것은 그러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개혁의 성과가 가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학교평가가 낮아져서 정부의 지원 및 기업체로부터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이 결코 학교 당국만의 일은 아니며, 학생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저마다의 몫을 다 한 그 종합이러한 곧 진정한 교육개혁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이제 위로부터 개혁보다는 학교 구성원 전체의 밑으로부터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교육개혁도 학교가 벌이는 여러 사업도 최종적으로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다. 면학분위기는 학교의 모든 것이다. 뜨거운 정치적인 문제도 면학을 선행하지 못한다. 선차가 흐려지고 수단과 방법이 진도된 세상이라지만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민족독국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 것이다.

“일제잔재 청산에는 시효 없다”

국민 모두의 관심·참여로 잘못된 역사 바로잡아야

광복 52주년에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1993년에 이어 친일의 수괴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완형의 조상청산기 소송의 승소, 그리고 백범 김구선생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씨에 대해 실형선고와 어선남치를 앞세운 한·일 어업협정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19세기의 실정법 지상주의에 매달려 민족정기와 정법의 역사를 외면·왜곡시키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 박기서씨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에서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서 범용상 근거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죄의 관념이나 민족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를 어긋난다'고 밝히면서 승소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지나쳐버린 일제잔재청산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1993년 한·일회담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파 후손들의 친일조상청산기

소송은 화해산란은 국민들의 분노와 국외에서 이완용 명의 토지재산 국외환수 추진을 위한 공청회와 시민단체들의 압박정원 등이 전개됨으로써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일순간 들끓었다가 언제 그런일이 있었느냐며 이내 식고마는 국민 여론으로 인해 친일파 후손들은 친일조상청산기소송을 계속하는 등 다시 준동하고 있다.

지난해 광복 50주년을 앞두고 학계에서 한일과거사 매듭은 '한일합정'부터 다시 손질하는 일이라고 한일과거사 청산법국민운동본부 결성1주년 기념 '한일합정 개정안 발표 및 공청회'에서 주장하였다. 일제잔재청산 작업이 온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일본 관료의 계속되는 망언, 과거사 왜곡문제, 독도영유권 주장,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등 과거에 이미 정리되어야 할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고 친일파와 그 후손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친나치 정권인 비시정권의 최고위관료였던 모리스 파퓔이 2차대전 당시 유대인 강제수용소 이송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취소

청구를 프랑스 최고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유대인을 체포로 강제수용소로 이송토록 명령하고 학살한 반인륜적 협력로 역사적 심판을 받게되었다고 한다. 모리스 파퓔은 전후 유대인들을 여러명 구해준 일이 있다고 주장해 복권되어 프랑스 파리의 경향극장과 국회의원, 예산장관을 역임하는 등 출세 가도를 달렸다고 한다. 이러한 죄위를 이용하여 과거의 나치협력·부역사실을 숨기고 그러한 사실들을 역사에서 지우려했지만,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 강제수용소행을 가까스로 모면했던 한 유대인에 의해 범죄 사실이 폭로되어 기소되었다 한다.

한일과거사 해결과 일제잔재청산은 '역사바로세우기'에 있어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동시에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루어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역사바로 세우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제라도 일제잔재청산문제와 한일과거사 정리에 국민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통합해야한다. 한일과거사 정리와 일제잔재청산 문제는 몇사람의 힘으로

되는 작업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참여만이 해 낼 수 있는 일이다. 방관자적 자세와 패배자적 자세로 일관할 때, 친일파와 친일파 후손들의 준동은 극에 달하여 일제잔재청산작업은 벽에 부딪히고, 무너진 민족정기는 다시 세울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실례를 말리는 반민특위의 좌절과 가까운 친일의 무두머리인 이완용·송병준 후손의 조상청산기소송과 1993년 7월 김영삼 정권이 추진했던 '친일열의독립유공자 서훈박탈' 작업이 친일파 후손과 친일의 과거가 있는 신문제법들의 준동으로 좌절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해방후에 조국청살자라는 그림자한 웃음으로 감아입었고, 지금 이시간에도 그들은 친일의 과거행적과 정체를 감추고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그럴싸한 가면과 복으로 우리사회에서 원로·유지 또는 실력자로 군림해 오고있다.

지난해 이탈리아 법정에서는 나치 친위대 대위 프리드리히 폰 폰스미트로와 사전계획아래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 석방했으나, 분노한 로마시민의 육탄처지로 재수감

되었다. 세계 2차 대전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는 나치 범죄자나 대독협력에 대해서는 무한소급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무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친일파청산문제에 있어 반민특위가 친일파의 준동으로 좌절된 이후 계속해서 친일청산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시효제나 소급입법금지 등을 들먹거리고 국민회합차원에서 "과거를 묻지 말라"며 친일의 행적을 은폐·왜곡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려고 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친일파의 후손들은 친일 대가의 재산을 행사하고 명명거리면서 후안무치한 얼굴로 유지행세를 하며 조상청산기를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광복 52주년에 국민 모두가 친일청산작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결단이 무너진 민족정기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언제까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벽으로 쓴 거짓말'을 방치할 것인가?

이철호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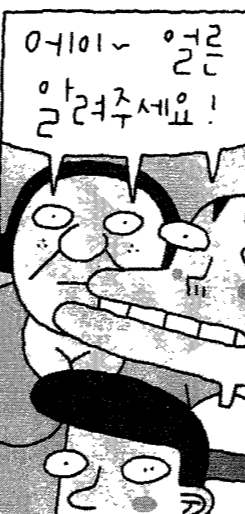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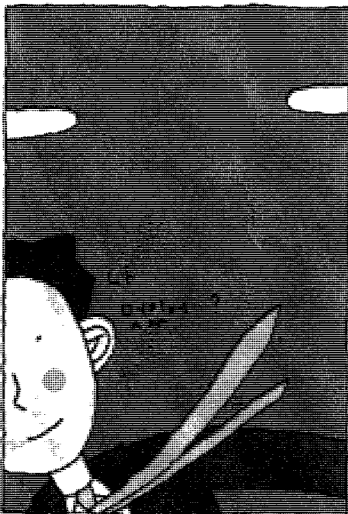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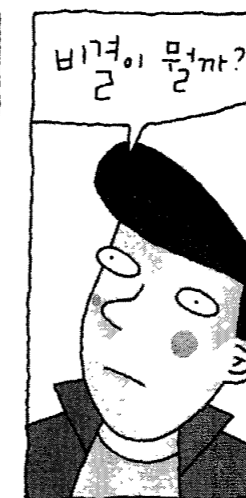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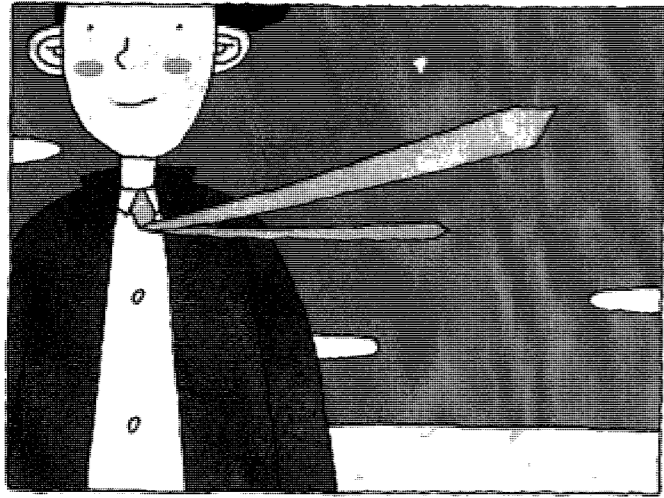
이번 호부터 동국민평 필자가 고대성(미학과 4학년)군에서 본사 신용우 편집부장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동국민평

신용우



민을 수 있는 친구 - 삼성



당신을 새롭게 하는 힘, 삼성에는 늘 변화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통일운동 진영이 나아갈 길

단결만이 살 길이다
'하나의 대회' 다짐했던 6·24 합의 무산



◇ 지난 15일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린 8.15 52주년 기념식 (사진=이일)

올해 8월 통일행사가 분열되어 치러졌다. 예상했던 대로 8차 범민족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조차 치러지지 못하고 광주에서 6백여명이 참가해서 진행하다가 공권력의 침탈로 제대로 대회를 치러지지 못했다. 용산가족공원에서 치러졌던 97평화통일민족대회도 경찰들의 삼엄한 경계와 감시 속에 1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단한 기념식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었다. 올해 통일운동의 분열을 반영이라도 한 듯 대중들은 문화공연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도록 통일운동의 분열은 어느 대회이건 반통일세력과의 전선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대중들에게 통일의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느 장소에 있던 대중들은 직접적인 심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통일행사를 남측 통일운동세력이 통일 단결하고 남과 북, 해외가 거족적으로 함께 하는 '하나의 대회'로 치러야 한다는 것은 남측 대중들의 하나같은 열망임은 물론이고 북, 해외 모두의 일치된 염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의 요구를 받아 안아 일찍부터 범민련 남측본부와 전국연합, 민족회의는 올 8월 통일행사를 '하나의 대회'로 치르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고 그 노력이 드디어 6·24 합의의 결과로 맺었다. 이 6·24 합의는 그간 남측 통일 운동진영내의 고봉스런 분열을 풀고나아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한층 높여나, 통일운동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지난 2월 22일 열린 전국연합 대의원 대회에서 한총련도 참가한 가운데 거족적인 하나의 대회를 결의하였고, 범민련은 4월 24일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8월 대회를 '하나의 대회'로 치를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침과 대중의 요구에 기초하여 6월 24일 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족회의 사이에 '하나의 대회'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 6·24합의를 전국연합은 6월 26일 중집에서, 민족회의는 7월 29일 의장단 회의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7월 31일 의장단 회의에서 추진하였다. 그런데 범민련 남측본부는 7월 10일 의장단회의에서 3가

지 전제조건(남·북·해외의 3자 합의에 기초한 공동결의문 채택, 범민족대회, 반정부행사가 공식적 보장, 남측 추진기구내의 범민련 지위의 일대일 보장)을 확정하였고 7월 24일 의장단회의에서는 범민련 독자적으로 8차 범추본을 꾸리기로 하고 3가지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의 대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한편 97평화통일민족대회 추진위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7월 22일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대회의 정치적 과제에서 '외국군 철수'와 '연방제 합의확산' '미국이 책임있는 당사자로 참가하는(평화협정 체결)'을 삭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6·24합의를 후퇴시키고 말았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은 과도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마땅히 자신의 요구를 전체의 요구에 일치시켜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가야 했다. 전국연합과 민족회의는 후퇴시킨 정치적 과제를 6·24합의대로 즉각 복원시킴으로써 6·24합의를 준수했어야 마땅하다.

6·24 합의는 남측 통일운동세력이 그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된 대의를 이루 반통일세력과의 공동전선에 힘있게 나서겠다는 약속이며 북, 해외 동료들과 민족대단결을 이루겠다는 선언이다. 이처럼 6·24 합의는 남측 통일운동세력의 분열을 극복하고 민족대단결의 큰 마당으로 다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하는 전체 민족의 한결같은 열원을 반영하여 탄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족회의 어느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이 6·24 합의를 깨는 것은 남측 대중 나아가 전체 우리 민족의 대단결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저버리는 분열주의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통일운동 세력의 분열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통일운동진영이 나아갈 길은 오로지 단결밖에 없다. 단결은 곧 승리를 명확하게 인식하자.

김종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서울연합 지동위원회)

'제8차 범민족대회' 약식진행
15일 조선대서 원천봉쇄속 강행

언론에서는 '제8차 범민족대회'를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도한 반면,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의장=강위원·전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은 성명서를 통해 범대회를 사수했다고 밝히고 진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학생들은 범민족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못됐구나' 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범대회는 광주 조선대에서 지난 15일 6백여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약식으로나마 치러졌다.

8월 초부터 서울지역 및 전국 대학가 대학생들 중심으로 범민족대회 원천봉쇄를 위해 시작된 경찰의 불심검문은 8월 13일 수원역에서 서울행 열차에 탑승해 있던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등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그 수위를 더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서울에서 범대회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한총련은 15일 광주 조선대에서 전투경찰이 진입하는 등 광주 역시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삼삼오오 학생들이 조선대로 들어왔고 오후 4시에 시작

하기로 했던 당초계획과는 달리 오전 11시에 통일축전 문예단의 문예공연을 시작으로 제8차 범민족대회의 막이 올랐다.

조선대 학생회관 앞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남총련의장 대령의 범청학련 총회보고, 투쟁경과 보고에 이어 범민련 관계자의 대화가 진행됐고, '천리마'의 문화공연이 있었다. 범민련 관계자가 통일에 대한 시를 낭송한 후 범민련의장 대령이 발언을 하던 중 갑자기 경찰철거가 나타나 상공을 맴돌더니 최후백을 뿌려댔다. 대응운동에서 전투경찰과 학생들의 대치가 30여분간 계속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조선대 뒷산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이번 범민족대회는 막을 내렸다.

규모나 참가인원, 일정 등 지난해와 크게 다른데 약식으로 치러진 이번행사에 대해 본교 총학생회(회장=구장주·야간경영의)의 한 관계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느냐보다 약식이라도 범대회를 치렀는데에 의의가 있다"며 통일운동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 8월 15일 조선대 학관앞에서 열린 제8차 범민족대회 (사진=사회부)

학생참여 불허한 반쪽짜리 통일운동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자리 만들어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모토로 한 '97 평화통일 민족대회' 그러나 지난 1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가족 공원에서 열린 '97 평화통일 민족대회'는 정부의 학생 참여 불허로 반쪽짜리 행사에 그치고 마는 아쉬움이 남는 통일 행사였다.

'97평화통일 민족대회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행사는 전국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6개의 시민단체와 2천여명의 시민이 모여 동포애의 물결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열자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지원,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체결, 인권 보장 등을 외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공연을 위한 동포들이 모금운동이 벌어져 1백60만원의 금액이 모였으며 행사장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한편, 이날 이혼의 주위를 비롯한 용산가족공원 주변 곳곳에는 대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막기위해 수백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

한총련 수배자 검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해 3백여명의 학생들은 공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혼여 부근을 서성이기도 했다.

특히 검문은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서 더욱 철저해져, 7시 30분경에는 세차대에 걸쳐 해신경로가 둘러싸인 무장된 경찰에 의해 학생, 시민 34명이 영행되어 시민은 바로, 학생은 조사를 쓴 다음 풀려났다.

민족의 대단결과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열린 행사인 '97평화통일민족대회'에 대학생 참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날 행사를 관망하던 서경미(34세) 주부는 "모두가 하나되는데 의미가 있는 평화통일 행사에 대학생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검문에 대한 비판을 하고 "통일행사 참여에 제한을 두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97평화통일민족대회'는 예년과는 달리 문과영 위주로 이루어져 불거리가 많지는 했지만 통일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성찰을 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족의 단결을 주장하는 자리에 특정계층의 참여를 불허한 것은 이번 민족대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해에는 반쪽짜리가 아닌 한마음을 한뜻으로 한데 어우러져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행사가 되길 기대해본다.

(사회부)

동약로

길들여짐

"내가 한총련으로 보여요?" "사람 가려가면서 검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모두 한총련이지 뭐?" "누군 좋아서 새벽부터 이리하고 있는지 아냐?"

불심검문과정에서 가장 심한 한 학생과 경찰사이의 짧은 대화

유, 성명을 먼저 밝힌다는 신분증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지금 태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검색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게 명시돼 있다.

이는 실제로 학생들이 이들의 '당연'에 등조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난 경찰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쉽게 학생들은 신분증제시와 가방 검색에 응한다. 쉬운 불심검문에 우호적인 협조,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항의하고 "불심검문 거부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학생들이 없어 안타깝다.

(최정식 기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CS 인종마크 국내최초획득

고수님 개장파티부터 하구요!

에버랜드 · OB 라거가 함께하는 캠퍼스 페스티벌! 8/23 ~ 9/7

푸짐한 행사, 엄청난 할인!

- OB라거 사음행사
- 팔팔라-런스 콘서트
- 세계로 가는 OX 퀴즈열전
- 캠퍼스 기념품 경연대회
- 베스트커플 선발대회
- 대학별 그룹사운드 콘서트
- 에어로빅 & 재즈댄스 페스티벌

NEWS 1. 에버랜드 이용권 50% 할인!
(캐리비안베이 포함)
단, 그대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50% 할인 (학생증 비치필요)

NEWS 2. 에버랜드 직행 익스프레스 탄생!
익스프레스 하나, 광역에서 출발!
(경기 수원권공 문의전화: 201-7710)
익스프레스 둘, 광화문에서 출발!
(정삼관공 문의전화: 739-0011, 통화연결음 뒤)

늘 첫잔값이 상쾌한 맛 - 협찬: OB라거 문의처 080-030-8282(수신자부담) · (02)234-6171~4 (0335)20-5000 ● 유니텔 · 천리안 · 하이텔 GO EVERLAND ● http://www.everland.com ● 주소: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 310 에버랜드

EVERLAND

◇ '97학년도 후기 신/규/교/수/프/로/필

21세기 열린 교육을 이끌어갈 주역들



김용표
(불교대학 불교학부 전임강사)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Temple대 종교학 석사
Temple대 종교학(종교학 박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종교학 강의



김호성
(불교대학 불교학부 전임강사)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
동국대 인도철학 석사
동국대 인도철학(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인도 고대철학 강의



정진일
(불교대학 불교학부 전임강사)
일본대정대 불교학과 졸업
일본대정대 불교학 석사
독일 괴팅엔대 인도학·불교학
(철학박사)
독일 Georg-August대 상임연구원
범어·티베트어 강의



유현우
(문과대학 인문학부 전임강사)
동국대 철학과 졸업
동국대 철학 석사
동국대 철학(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중국 근대 및 현대 철학 강의



홍신선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교수)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국대 국어국문학 석사
동국대 국어국문학(문학박사)
수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현대시론 강의



장영우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전임강사)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국대 국어국문학 석사
동국대 국어국문학(문학박사)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소설창작론 강의



박영환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동국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대안국립성공대 중문학 석사
중국북경대 중문학(문학박사)
동국대 강사
중국어학 강의



김현정
(이과대학 반도체학과 전임강사)
독일 괴팅엔대 물리학과 졸업
독일 괴팅엔대 물리학 석사
독일 함부르크대 물리학(이학박사)
함부르크대 및
HASYLAB/DESY 연구소 Post Doc.
반도체재료 및 공정물리학 강의



정연주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 법학 석사
독일 뮌헨대 법학(법학박사)
전남대 법과대학 조교수
행정법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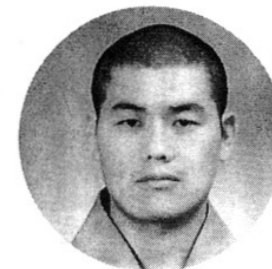
박순성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전임강사)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프랑스파리10대
경제학, 사회철학 석사
프랑스파리10대
경제학(경제학박사)
민족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부연구위원
북한경제 및 무역



조봉연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전임강사)
동아대 토목공학과 졸업
동아대 토목공학 석사
동경대 환경공학(공학박사)
웅진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수질환경 강의



홍광원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전임강사)
동국대 식품공학과 졸업
고려대 농화학 석사
고려대 농화학(이학박사)
Yale대 분자생물리 및
생화학 and Post Doc.
생화학 강의



김응기
(불교문화대학 국악과 전임강사)
명지대 행정학과 졸업
원광대 중앙종교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학(문학석사)
육천범음대 영상재 보존회
연수부위원장
불교음악 강의



장영길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부 전임강사)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국대 국어국문학 석사
동국대 국어국문학(문학박사)
동국대 강사
국어학 강의



정길상
(인문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 전임강사)
동국대 체육교육학과 졸업
동국대 체육학 석사
경희대 체육학(이학박사)
동국대 강사 체육측정평가 강의



류완하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전임강사)
동국대 미술학과 졸업
동국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동국대 강사
순수조각 강의



도재수
(자연과학대학 전자정보공학부 전임강사) 경북대 전자공학과 졸업
일본북해도대학 전자공학 석사
일본북해도대학 전자공학
(공학박사) 영동공과대 강사
전산과학 강의



김현아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
동국대 한의학과 졸업
동국대 한의학 석사
동국대 박사과정 재학
경주한방병원 임상연구원
한방이비인후과(경주한방병원)강의



장준혁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
동국대 한의학과 졸업
동국대 한의학 석사
동국대 한의학(한의학 박사)
분당한방병원 임상연구원
한방침구과(분당한방병원) 강의



김기권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계명대 의학과 졸업
계명대 의학 석사
계명대 의학(의학박사)
진주제일병원 병리과장
병리학 강의



최석철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전북대 의학과 졸업
원광대 의학 석사
동국의료원 임상전문의
산부인과(경주병원) 강의

(이상 21명)

삼보컴퓨터
http://www.trigem.com

TRIGEM & EPSON



앗!
"레이-밴 선글라스닷!"

시원한 찬스



삼보 컬러프린터 600H(1440DPI)를 할인가격에- 레이-밴 선글라스까지 보너스로 드립니다

기간 97. 8. 27~9. 13
사은품 레이-밴(Ray-Ban) 선글라스
킬러-루프(Killer-Loop) 선글라스 중 하나

해상도 1440DPI로 컬러 커뮤니케이션 한다.



삼보프린터 44
TRIGEM & EPSON Stylus COLOR 600H

- 인쇄방식: 마하방식
- 해상도: 1440DPI x 720DPI
- 인쇄속도: 흑백6PPM, 컬러4PPM
- 용지지원: A4, B5, 엽서, Letter, OHP film, T-shirt 전사용지
- 가격: 299,000원 → 400,000원(VAT 포함)
단, 가격할인은 9.10까지

삼보 One-Call 서비스 / 교육협수 서울·경기 02 365 3636 기타지역 080 535 3636

컴퓨터는 젊은사람들이 잘 만듭니다. 삼보

합무역사시연수원 운영연수원 출간
 이무원=▲금융국제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기공무역구조를 중심으로- △50년생 △경성대 무역학과 졸 △장안전문대 무역학과 교사
 최종만=▲외부감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내부감사의 신뢰성평가 △57년생 △연세대 경영학과 졸
 이종원=▲농산물 유통경로에서 환경적 요인이 거래자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과물 증도매인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 졸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상무이사

한명수=▲Hg/Te/CdTe 초격자의 성장과 특성에 관한 연구 △68년생 △분교 물리학과 졸 △한국전자 종합연구소 연구원
 조화동=▲MBE에 대한 III-Nitride 박막 성장 및 결함 특성 연구 △63년생 △분교 물리학과 졸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황강진=▲제한 선형화귀도형의 GEM추정법에 관한 연구 △60년생 △충북대 통계학과 졸 △영동 전문대학 사무자동학과 조교수
 조준형=▲종의 Lipoygenase 효소의 검정 방법과 관련요인 규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67년생 △분교 농학과 졸 △분교 응용생물학과 조교

신수철=▲도시근교림의 산림군집구조 및 식생환경에 의한 삼림통태에 관한 연구 △64년생 △한국전자 종합연구소 연구원
 조화동=▲MBE에 대한 III-Nitride 박막 성장 및 결함 특성 연구 △63년생 △분교 물리학과 졸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황강진=▲제한 선형화귀도형의 GEM추정법에 관한 연구 △60년생 △충북대 통계학과 졸 △영동 전문대학 사무자동학과 조교수
 조준형=▲종의 Lipoygenase 효소의 검정 방법과 관련요인 규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67년생 △분교 농학과 졸 △분교 응용생물학과 조교

화 △46년생 △분교 식품공학과 졸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잔류농약과장
 차중수=▲김치에서 분리한 bacteriocin생산 젖산균과 김치 발효에의 이용 △63년생 △분교 식품공학과 졸 △한양여자 전문대학 강사
 김광수=▲이상지 영양분석을 위한 로버스트 회귀모형개발 △59년생 △분교 공업경영학과 졸 △충주산업대학교 산업공학과 학과장
 방혜정=▲혈무축어탕이 Triton X-100 주사로 유도된 생쥐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65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동방방의원 원장
 김준열=▲A Study on Macrophage-Stimulation Activity of the Water-soluble Polysaccharide from

Phellodendron chinese Schreid. △69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소방 한의원 원장
 박명옥=▲Inhibitory Effect of Pyranjohwan(편자환) on the Secretion of Hepatitis B Virus and Hepatocarcinogenesis △55년생 △경희대 한의학과 졸 △경성한의원 원장
 송우섭=▲자하차약침 및 부자약침자극이 한방자극으로 유발된 흰쥐의 면역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 △65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한의원 개인
 윤병현=▲애구가 한방자극으로 저하된 흰쥐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62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유병현한의원 개인

권오성=▲연교패독산기마방이 DNCB로 유도된 생쥐의 Allergy성 접촉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65년생 △경성 한의학과 졸 △애관 재일한의원
 안준철=▲간유·기본의 당귀약침이 흰쥐의 항산화반응에 미치는 영향 △68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동양한의원 원장
 서은교=▲과루인과 황금의 폐렴집이 여체에 관한 실험적 연구 △66년생 △분교 한의학과 졸 △분교 한의대 강사

석사학위

김명숙=원효대사의 이상설과 치단론 연구
 정철영=설총의 신행당요해 연구
 조병립=나·려서대 보의 연구
 이경래=금강산배경론에 나타난 원효의 선사상
 강인수= '구사론'에 나타난 무명에 관한 연구
 남승호= '해바라라 띠뜨라'의 대승불교 사상-파리슈나짜리아의 '요기파리나말라'를 중심으로
 김수연=비구니 불공예에 나타난 여성상- '사불'을 중심으로-
 강희화=김수영 시 연구 - '새로움의 시학'을 중심으로-
 오재혁=원효설화의 구조와 의미
 최의영=김동리 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이병진=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식 연구
 안경화=고려서구의 궁중악으로의 수용양상 연구
 박준석=16세기 '청주 북일명 김씨묘 간찰'의 언어학·어미의 초기사에 나타난 신화와 가문의 연구
 박민석=Nonuniformity in the Overt Syntax of Antecedent Contained Deletion
 김구원=고려불화에 나타난 아이타신앙에 관한 연구
 신재욱=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활동 연구
 심희경=서산 모원사지 불교조각
 이경희=순·고종시대 도석인물화 연구
 이경모=20세기 전기 구미유학 화가의 연구
 김경성=유물사 대응보존 산불화도의 연구
 송성진=왕필의 특의방인론에 관한 연구
 유민준=왕필의 역학사상 연구 -역학 방법론을 중심으로-
 안주영=스즈키 타다시 극단의 극장 특성 연구
 김세희=배창호 영화의 캐릭터 연구
 한승홍=단편 영화(저는 지금 부재중입니다) 제작에 관한 연구
 최운선=수준별 교육과정의 현실화를 위한 한의 회=아나모르포즈(Anamorphose)기법을 이용한 현대회화의 의미
 송관숙=유동적 형상에 관한 본인 작품 연구
 김경희=현대회화에 있어서 문자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돈중=저항권에 관한 연구 -한국의 민족·민주운동과 저항권론-
 오시경=저당군의 피랍보채권에 관한 연구
 나병용=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과 관련하여-
 이준희=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박찬호=작대국 기업매수의 방어책에 관한 연구
 박승호=환경권 침해와 구제 -행정법상의 보호와 구제 중심으로-
 최문환=자본의 국제화와 국가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정준생=한국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연구 -스웨덴 사례에 비추어-
 박정진=북한의 '생산정치(Politics of Production)'와 노동자 조직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이영재=진보적 시민사회의 정치기획
 강태홍=한국 정당의 정당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상관성 연구
 김근석=행정정보공공활용체계에 관한 연구
 이승목=한국 마약류 규제에 관한 연구
 이경연=시민운동단체의 가입동기가 단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박민석=한국부가가치세에 관한 연구
 이홍수=경력별 유형에 따른 심리적 계약의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정광호=환경의식적 소비행동의 특성과 그린 마케팅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주부를 중심으로-
 이동규=직장인 성과와 사전지식의 확산간의 관계가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기타·불일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최권호=우리나라 기업의 CALS 구축 현황에 관한 연구 - CALS 구축의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김기홍=한국 의류패션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관한 연구

권덕근=다양한 Silane 화합물을 이용한 Poly-carbosiare 합성에 관한 연구
 김병구=LB박막을 이용한 프탈로시아닌의 광장간 거구에 관한 연구
 채형선=Oxazoline을 이용한 Monobactam 합성에 관한 연구
 이진희=수용액중에 Poly의 LCST에 미치는 Poly의 영향에 관한 연구
 양승태=양전자방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¹⁸F 표지 tamoxifen 유도체 합성에 관한 연구
 김종일=다중공성선 진단축도 비교
 김현선=MCEM 알고리즘을 이용한 증도절단된 정규분포의 모수 추정
 안성희=다변양 정규자료의 이상치 검안에 관한 연구
 최이진=선인장 단백질 및 Esterase 동위효소 특성에 관한 연구
 장경희=옥수수 열감의 유전에 관한 연구
 유정선=한국산 녹대기미과(Lyosidac)의 분류학적 연구
 홍영주=Solanum commersonii와 Stuberium과 반수체간의 세포융합체와 후대자손을 이용한 세균성 꽃마름병 저항성을 재배품종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
 김우성=모자반과 느릅의 추출물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
 오정석=Isolation, Characterization and Application of Aromatic Compound-Utilizing Rhodococcus sp. DGUM 2011
 장대경=우리나라 장모형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이종민=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심전도 압축기법
 황경현=적응적인 형태학 필터와 생피코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영상의 잡음 제거
 장전대=웨이브렛 변환과 격자 벡터 양자화를 이용한 영상 부호화기 설계
 방남호=내용 기반 검색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 모델
 정태경=미동특이 추출 성능이 향상된 한국어 색인 시스템
 백희경=다중 슬롯팅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의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
 여인준=그를 통신에서 계층적 중재자 모델을 위한 프로토콜 설계
 김은주=시나리오를 이용한 객체 지향 시스템의 통합 테스트
 오창복=병렬부하공진기법을 이용한 전자식 안경기의 회로해설 및 설계제에 관한 연구
 양정영=영상의 특징점 추출을 이용한 연산량 감소 및 보상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박현식=홍선의 흐름과 분포에 근거한 지문 영상의 분류
 윤 석=중기양생 콘크리트의 최고양생온도에 따른 동결융해 저항성
 고성일=낙동강하구 퇴적지질의 미립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
 남용혁=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에 관한 연구
 이용호=공기량에 따른 밴드드레인 풍수능력 변화
 김동원=soil Column 시험을 통한 불포화도 침투기동
 신희철=중로트러스 철도교의 동적해석-당산철교를 대상으로
 신은영=건축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의 개선 방향
 강희정=투법법을 이용한 조영설계 보정에 관한 연구
 이형선=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성향과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Bryan Lawson)의 디자인 사고 분석요소를 통하여)
 김경민=건축공사 감리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최성준=다상분체 휘발성 약점해설 용액에 대한 기액평형 및 Airin Stream으로부터 CO₂ 흡수공정의 응용
 장문영=식품압출성형공정의 열 및 기계에너지와 녹말호화에 관한 연구
 김형일=기열방법에 따른 단위중의 테트라사염화물 형성물질의 잔류량 변화
 정성희=능동적 프레임 전송 스케줄링에 의한 실시간 동영상 서버의 설계
 정성재=우어의 의화사상에 관한 연구
 김태훈=녹용약침자극이 난소적출에 의한 갱년기유발 백서의성 Hormone 분비변화에 미치는 영향
 현동환=Inhibition of growth of the established3-methyl-DAB-induced mammary cancer in mice and lung endothelial cells by Garrisangwhatang
 이용호=태산번식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조홍윤=풍지·축삼리의 회경약침자극이 백서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권혁진=A Study on Effects of Phellodendron chinese Schreid Extracts in Hepatoma Cells

유원근=농도별 흡화수침이 흰쥐의 Adjuvant 유발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김근우=취담탕의 흰쥐의 고지혈증에 대한 실험적 연구
 우덕안=괴사사탕의 변이원성에 관한 연구
 김윤자=평보탕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
 김태우=내장에 관한 연구- 풍의보감의 내경 중심으로
 최형일= Alloxan과 IL-1β유발된 당뇨병 마우스의 해당 glucokinase 및 hexokinase 활성에 대한 오메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영준=삼학산이 뇌조직의 acetylcholine esterase 및 monoamine oxid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이상봉=오형산이 비만유도 흰쥐의 체중 및 혈당지질에 미치는 영향
 최이진=선인장 단백질 및 Esterase 동위효소 특성에 관한 연구
 김경희=옥수수 열감의 유전에 관한 연구
 유정선=한국산 녹대기미과(Lyosidac)의 분류학적 연구
 홍영주=Solanum commersonii와 Stuberium과 반수체간의 세포융합체와 후대자손을 이용한 세균성 꽃마름병 저항성을 재배품종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
 김우성=모자반과 느릅의 추출물이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
 오정석=Isolation, Characterization and Application of Aromatic Compound-Utilizing Rhodococcus sp. DGUM 2011
 장대경=우리나라 장모형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이종민=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심전도 압축기법
 황경현=적응적인 형태학 필터와 생피코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영상의 잡음 제거
 장전대=웨이브렛 변환과 격자 벡터 양자화를 이용한 영상 부호화기 설계
 방남호=내용 기반 검색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 모델
 정태경=미동특이 추출 성능이 향상된 한국어 색인 시스템
 백희경=다중 슬롯팅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에서의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
 여인준=그를 통신에서 계층적 중재자 모델을 위한 프로토콜 설계
 김은주=시나리오를 이용한 객체 지향 시스템의 통합 테스트
 오창복=병렬부하공진기법을 이용한 전자식 안경기의 회로해설 및 설계제에 관한 연구
 양정영=영상의 특징점 추출을 이용한 연산량 감소 및 보상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박현식=홍선의 흐름과 분포에 근거한 지문 영상의 분류
 윤 석=중기양생 콘크리트의 최고양생온도에 따른 동결융해 저항성
 고성일=낙동강하구 퇴적지질의 미립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
 남용혁=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에 관한 연구
 이용호=공기량에 따른 밴드드레인 풍수능력 변화
 김동원=soil Column 시험을 통한 불포화도 침투기동
 신희철=중로트러스 철도교의 동적해석-당산철교를 대상으로
 신은영=건축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의 개선 방향
 강희정=투법법을 이용한 조영설계 보정에 관한 연구
 이형선=건축가 김수근의 작품성향과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Bryan Lawson)의 디자인 사고 분석요소를 통하여)
 김경민=건축공사 감리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최성준=다상분체 휘발성 약점해설 용액에 대한 기액평형 및 Airin Stream으로부터 CO₂ 흡수공정의 응용
 장문영=식품압출성형공정의 열 및 기계에너지와 녹말호화에 관한 연구
 김형일=기열방법에 따른 단위중의 테트라사염화물 형성물질의 잔류량 변화
 정성희=능동적 프레임 전송 스케줄링에 의한 실시간 동영상 서버의 설계
 정성재=우어의 의화사상에 관한 연구
 김태훈=녹용약침자극이 난소적출에 의한 갱년기유발 백서의성 Hormone 분비변화에 미치는 영향
 현동환=Inhibition of growth of the established3-methyl-DAB-induced mammary cancer in mice and lung endothelial cells by Garrisangwhatang
 이용호=태산번식산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조홍윤=풍지·축삼리의 회경약침자극이 백서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권혁진=A Study on Effects of Phellodendron chinese Schreid Extracts in Hepatoma Cells

문화용=특정고압 가스사고 안전관리의 실태 분석과 그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최덕기=한국 소방행정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범배=학생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 연구-학교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한복관=종교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노인을 중심으로
 김인숙=노인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클라이언트를 위한 노인종합복지센터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오기봉=노인학교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시 소재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김진영=유급가장봉사의 과정 사업 현황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가장봉사사업 과정사업소를 중심으로
 임종인=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림=영구 임대 아파트 거주 청소년의 실태와 복지정책방안연구-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거주 13-19세를 중심으로
 양철식=시각장애 노인의 복지에 대한 욕구 조사
 김병두=남한 우의시책의 지하당 건설운동에 관한 연구
 강병철=북한의 대남심리전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최상훈=분단군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한반도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안창일=지역관광자원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계룡신도시를 중심으로

운영에 관한 연구
 송예자=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창호=학교장의 지도성과 학교조직문화 및 중도의 상관연구
 홍점덕=초등학교 하급 경영자 자질 진단
 송춘혜=다각적 진로지도가 진로역시 함양과 기본생활 습관에 미치는 효과
 허혜진=불절절화를 중심으로 한 유아 그림 등화 제작 및 활용 프로그램 연구
 이희숙=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정책방향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신은순=보육시설 종사자와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박소영=유아 전통놀이 활성화를 위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 연구
 이말현= '법학경연회'의 평가사적 고찰-초간본 권.2와 개간본 권.2의 대비를 중심으로
 임형영=오영진 회곡연구-그 비판정신을 중심으로
 이수배=정신지체의아 의 표현력 신장연구
 임형영=유재용의 '섬'역론-육당구조를 중심으로
 김상기=관객의 속성 및 행태분석
 윤방인=조선시대 첩보문양 연구
 임창덕=예술계 고등학교생들의 수학 교수학습의 효율적인 지도에 관한 연구
 최수태=구성주의적 수학 교수학습을 위한 수업모델과 그의 적용에 관한 연구
 남기복=수학적 사고의 단계별 지도에 의한 형성평가의 개선에 관한 연구
 문경희=승영식수성에 의한 요변화에 관한 연구-시험수 처리와 동유효과를 중심으로
 최형주=유미 민영의 문인과 세계
 김승원=부세회의와 인상주의 색채연구-파비엔(Fabar Eimen) 색채이론을 중심으로
 양재현=Alphonse Mucha의 조형세계에 대한 연구-19세기말 포스터 작품을 중심으로
 윤민철=투기종목 선수들의 운동상해에 관한 조사연구-대학선수를 중심으로
 이진경=무용동작교육을 통한 연기기술 적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근효=운동기능수준과 운동 수행시간이 상대 타이밍에 미치는 영향
 박희정=자유형 래슬링 경기에서의 기술에 관한 분석
 안영숙=스포츠 마케팅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고찰
 김경태=농구 수 학 학습에서의 맥락감에 관한 고찰
 이덕희=고혈압환자의 생활습관 변화가 혈압과 지시, 태도 습관에 미치는 영향
 김경중=수도권 신도시 청소년들의 스포츠 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박원근=운동참여와 자긍심이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미치는 영향
 박연주=William Blake의 Contraries 소광속=이중목적어문과 성격구분의 구조-Larsen(1988)과 Aoud and Li(1989)의 분석에 대한 비교연구
 김선희=농악처리 지역과 비처리지역의 논거미 군집의 비교연구
 유세희=심복골 동굴생물의 계절적 발생과 종구성
 김경천=해달도론을 중심으로한 불교의 인성 교육 연구
 김구만=노신 전기 사상의 배경 연구
 권경혜=현대 중국어에서의 '답'에 관한 연구

전과 계산 및 측정
 이성기=디지털 위성방송의 STL 전송구간에 서 영상신호 품질 측정 비교

산업기술 환경 대학원

윤영철=PHEMT MMIC을 이용한 PCS Handsets용 상·하향 변환기 구현
 신성진=MATLAB을 이용한 인버터로 구동되는 유도 전동기의 진동특성해석
 윤미진=시스템 인터럽트 기능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에 관한 연구
 강경구=세라믹의 레이저 천공에 관한 연구
 이영민=자동차 클러치 Judder 및 Shunt 현상에 대한 해석
 문범수=국립공원 숙박시설에 관한 연구
 이종복=도시 계획 구역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이덕희=공동주택 하자 개선에 관한 연구
 박재성=발파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엄호진=도로노면 결빙방지를 위한 융설체계에 관한 연구
 정일형=햄버거 제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안주훈=Hydroxydic acid 조제 함유 저열량 식사가 체중감량에 미치는 영향
 안영남=야생상황버섯 인공재배에 관한 연구

문학예술대학원

차욱재=고은 시의 변모양상에 관한 연구-60-80년대를 중심으로
 이혜정=광저의 '갈매기' 상징 고이명준의 '죽음'을 중심으로
 은정혜=이정준의 소설에 나타난 한의 구조론
 홍홍기=미당 서정주 시에 나타난 모더니티 연구- '화사집'을 중심으로
 윤대현=김수영 후기에 나타난 아이러니 양상
 김경희=조지훈 시의 정신사적 연구
 이현수=우리나라 정신병원 심리극의 실태분석
 현대희=입설의 극작기교에 나타난 인물구축에 관한 연구-특히 그의 '유령'을 중심으로
 김욱준=멜로드라마 서사구조의 비동기적 특성연구-영화 'Waterloo Bridge'와 'Love Affair'를 중심으로
 최금모=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대학원

박태식=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환경요인 연구-포항시 행정조직개편을 중심으로
 고순희=병원간호조직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경북지역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박기범=의료보험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의료보험제도 논쟁과정 및 논점분석을 토대로
 서정원=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연구
 한대호=대학단지 개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정주캠퍼스를 중심으로
 유영목=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박지민=전문대학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환경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박동원=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지원제도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영희=DEA방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경영 효율성 평가-대구·경북지역 영업점을 중심으로
 오세종=전자출판에서 PREPRESS의 변화추이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김원철=전자출판에 있어서 출력시스템 발전 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김영식=VHF 및 UHF 무선통신장비의 전파

경영대학원

김병운=EIT를 통한 무역자동화 업무의 활성화 방안 연구
 홍두표=한국 Offset Program의 성과에 대한 분석
 손경원=중국 동북상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사례 연구
 오영철=한국 국제 복합운송업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영욱=우리나라 화재보험 효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주요 보험선진국(미,독,영,일)의 제도고찰을 중심으로
 이창학=대학행정지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의용=인사고과제도와 조직유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윤혁권=국내기업의 물류 관리와 방안에 관한 고찰-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상정수=기업의 그린 마케팅의 광고전략에 관한 연구
 최경은=가족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TV,VTR, 의류, 가구, 주택,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안주희=귀금속, 보석제품의 소비자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김주희=스포츠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청소년층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중심으로
 유대영=초코렛 과자류의 광고전략에 관한 연구-초코렛류 광고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병성=소비자 불평행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자동차 및 가전제품(TV, VTR, 냉장고)을 중심으로
 최준선=비영리기관의 재무보고에 관한 연구
 이혜경=농업기계제품의 원가기회 적용실태 분석-다사 사례 중심으로
 이태호=우리나라의 양도시속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춘금=한국의 지적재산제도에 관한 연구
 신현중=직업군인 주거안정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업=시장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대응방안
 최승희=부동산 실험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대학원

고보현=지방자치시대의 환경분쟁 감소방안
 박정조=중국의 동북아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한중수교이후를 중심으로
 홍광남=감압전략 수행을 위한 합동전략 능력 발전방향
 성기균=군사장비의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준선=군수산업용 품질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SO 9000 규격의 군수산업전환 사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우식=중국 국방 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한철=작전체 제대의 전자전력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김정도=신세대 장비 지휘통제 연구-육군 보병 장병을 대상으로
 전춘택=북한의 경제력과 군사전력의 연계성 연구
 박진순=한국공군의 항공력 발전에 관한 연구-교리, 전략, 군구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정병철=한국해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1세기 해양안보를 중심으로
 최경우=한국 경찰비행부 승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시택=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 문제에 관한 연구
 오창근=정책의제설정에서 경찰정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훈식=한국보호경찰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안상현=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원

류재희=중등 학교조직문화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영순=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의 효율적

언론정보대학원

조용환=병민 환경의 위기 요소 유출과 긴급체제에 관한 연구-K대학 지방부속병원을 중심으로
 김대섭=기업현금흐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류준목=한국 신문의 환경관련보도경향에 관한 연구-조선·동아·한겨레 신문을 중심으로
 김홍기=우리나라 광고회사의 Presentation실태에 관한 연구-광고회사 증권사원 의사소사를 중심으로
 오세종=전자출판에서 PREPRESS의 변화추이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김원철=전자출판에 있어서 출력시스템 발전 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김영식=VHF 및 UHF 무선통신장비의 전파

퇴임교수 인터뷰

떠나가는 뒷모습이 아름답다

김정근(영문학과)교수 인터뷰는 개인의 부속이한 사정으로 실시 못하게 되었습니다. 글 쓰는 순서는 단과대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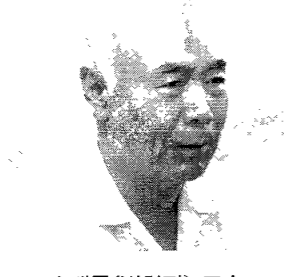


오형근(불교학과) 교수

진리를 깨우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늙는 것만을 보면 고통이야. 시간이란 인간이 정한 것의 의미일 뿐. 불교를 통해 인생의 진리를 알았기에 편안하게 퇴임을 맞이할 수 있지" 불교학과 오형근 교수는 퇴임을 끝이 아닌 지금의 연장선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그에게 퇴임은 그동안 계획한 세우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을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 그는 퇴임 후 대학원 강사로 출강하며 논문과 함께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불교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싶다고 한다. 또한 그는 10월경에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등 동양 문화를 학문적으로 세계에 포교할 계획이 있기에 지금도 누구보다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6·25를 겪으며 마음에 의해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는 불교의 진리를 깨닫고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불교 불교학과에 입학했지"라는 그는 학창시절엔 불교부장을 맡으면서 불교를 통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불교 대학원과 문화예술평화원에 불교 예술학과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불교를 교육적으로 실천하고 많은 제자를 배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불교가 세계적 정신 문화의 바탕이 될 수 있다며 '인생난독', '일체유심조' 등 불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불교에 대한 그의 열의가 누구보다 뜨겁다. 세대차를 느껴 본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하며 짧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요즘엔 세대차를 느끼곤 하지."라며 시대가 변해도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창조되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좋은 행동이 나오는 법이야."라고 말하며 불교적 인생관과 지혜관을 알아 보실행을 많이 하길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 불교를 세계에 알리려는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그에게 불교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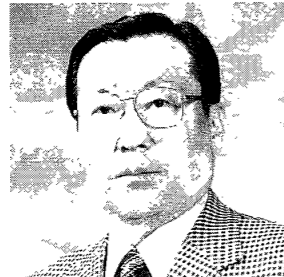


손해목(법학과) 교수

끊임없는 열정으로 법학자의 길 걸을터

"그리 섭섭하지 않은 것. 비록 지금 교수직을 떠나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를 보내려고 하니까... 알다시피 학문이라는 것은 끊임 없이 계속되는 거잖아."라며 15년간 몸 담았던 교정을 떠나는 심정을 담담하게 밝히는 법학과 손해목 교수. 넓은 이마 아래로 가득찬 주름살과 하얗게 선 머리카락이 무색해 보일 정도로 활기차 보이는 그는 퇴임교수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만큼 밝고 정중했다. 그간 '형법' 관련 분야를 연구해 온 그는 본교에 재직하면서 법대학장, 동대신문사 논설위원, 사법고시 심사위원, 한국 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법무부 형법 개정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88년도에 법대 교수진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장기 농성으로 인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재학생들에게는 "예전의 학생들과 지금의 학생들을 비교해 볼 때 별

다른 차이는 없지만 재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동안 선배들이 쌓아놓은 동국대의 명성을 유지·계승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재학생들이 분발해 주기를 바랐다. 이어 "이제는 현재의 모든 동국인들이 이 학교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 발전되는 학교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학교와 자기생활에 충실하기를 당부했다. 현재 법조 실무자를 위한 형법 강론(가정)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는 손해목 교수를 보면서 그에게 있어 정년퇴임이 결코 학문연구의 끝이 아닌 새로운 확언할 수 있었다. 연구실 모퉁이 한켠에 수북이 쌓여있는 책들을 정리하는 그의 손끝에서 식을 줄 모르는 학열과 또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한 사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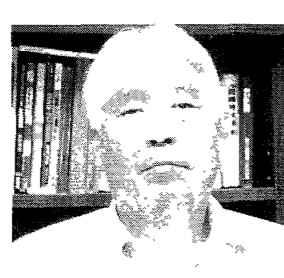


정윤무(행정학과) 교수

다시 태어나도 내가 걸어온 이 길을 택하겠다

"그야 물론 교수지" 정윤무(행정학) 교수는 다시 태어나면 무얼하고 살라는 질문에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1960년 본교 강단에 선 이후 행정대학원과 정보산업대학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본교 퇴임교수회인 '동지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교수는 그 확신을 강간이 네 번 바뀔 동안 많은 하루하루의 치열한 삶과 그로 인한 변화에서 얻었다고 말한다. 82년 5.16 당시 대 교수들이 정치계로 떠나는 상황에서 본교 정치학 교수로 재임중이던 정교수는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어야 했다. "강단을 떠나는 교수들의 뒷모습을 보며 많이 안타까웠지. 그리고 나에게 밀려오는 친구, 선배들의 권유들..." 그런데 정작 고민이 더해 질수록 떠나신 안단다는 확신만 들더라는 정교수는 강단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을 찾아오는 학생들과 예기도 하고 토론도 하며 부대끼고 사는 것이 더없는 즐거움을 시간이 지날수록 실감한다고 했다. 그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최고의 보람인 것을 말이다.

정교수는 퇴임을 해서 자신의 방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동대의 한 사람으로 동대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얘기하고 고민한 부분들이 사라질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즈음 기자의 눈에 들어온 정교수의 눈에는 떠나는 이의 그 쓸쓸함이 아니라 캠퍼스를 누비는 20대의 열정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 자신의 결정이 옳고 아름다웠다고 자신하며 지난 7월 7일 가까운 친구와 후배 그리고 재직들과 조출한 정년퇴임 출판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정교수는 40년 교직생활의 연륜으로 학생들에게 새 가지 수레를 주었다. "첫째 어학공부를 해서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것, 둘째 교양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폭을 넓힐 것, 셋째 청춘시절을 열심히 해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 물론 매 순간 순간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함은 기본이리네" (최 진 기자)



전창원(무역학과) 교수

장학금, 발전기금 기탁으로 받은만큼 환원할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대학 말이야. 경관도 빼어나고 시설도 잘 돼 있거든. 내가 조금만 줘서라도 그곳에서 연구를 할텐데... 결결결" 19일동안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지난 8월 19일 한국에 도착한 무역학과 전창원 교수에게서는 전혀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표정은 밝았다. 1989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나와 지금의 무역학과와 전신인 상과에 1983년 전임강사로 부임한 정교수는 그간 15권이 넘는 책을 써서 본교 교수 중 가장 많이 책을 낸 교수로 유명하다. 또한 본교 부설기관인 경제경영연구원 원장을 20년동안 지내면서 무역협회 경제기획원 연구비를 20여번이나 탄 것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탔을 거라- 자랑스러워했다. "역대재단의 이사님과 동료교수, 학생들의 협조로 별 탈 없이 만4년의 교수생활을 마치니 내 개인적으로는 남부러울게 없네"라며 말하는 그는 이내 "우리학교 명성이 옛날만 못하게 안타까워"하며 허공을 바라본다. 일제시대에 본교가 고려대, 연세대와 더불어 3대사립대학이었음을 강조하

는 그는 과거 그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립의 용기와 집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는 실력 제일주의자야. 사람은 모름지기 실력이 있어야 하고, 항상 실력향상에 주력해야 하네"라는 정교수는 5년 반동안 경상대학장을 하면서 취업준비생을 위해 영어특강을 제안해 실시한 것이 본교 취업률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으며, 그것을 가장 보람있었던 일로 꼽는다. 선배교수로서 후임교수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교수는 학생들과 많이 접촉해야 한다"며 "학생과 함께 하는 교수가 되길 바란다" 당부했다. 그는 현재 무역연구원에서 '초보자를 위한 무역실무책'을 집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교수가 세운 무역연구원은 그가 쓴 책을 직접 출판하는 곳으로 지금까지 9권의 책을 간행했다. "앞으로 학교에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탁할 예정이야.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하는 그의 말에서 동국에 대한 열정을 위이 식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



윤주억(식품공학과) 교수

자기발전 위해 부단히 노력하길 기대한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에게 일일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고 잔소리를 할 수 없는 게 제일 서운하지"라며 윤주억(식품공학)교수는 퇴임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부산 수산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68년 2월부터 본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한 약 30여년간 식품공학과 학문의 외길을 걸어온 그는 일본 대판대 단백질연구소 초빙교수로도 재직했으며 한국생화학회, 한국분자생물학회, 일본생화학회, 미국화학회, 미국단백질학회 등 국내·외 유수의 학회에 가입해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식품공학 중 단백질 분야의 최고 권위있는 학자라고 자부하는 그는 "교수생활 내만큼 논문을 많이 써서 발표하고 외국에 나가 학문적으로 인정 받은 교수는 아마 드물 것이라네"라고 학문에 대한 열의와 자신감을 표현한다. 학점 잔 교수로 소문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주변의 평판에 대해서 윤교수는 "내가 학점을 주지 않아 안 됐나? 다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안 준 거지"라며 허허 웃어 버린다.

"과거보다 동국대학교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학문에 전념하지 않아 아쉽다"는 그는 "21세기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자기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걸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하네"라고 당부할 한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퇴임이 강의의 끝이 아닌 학문의 끝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식품공학에 대한 저서집필 활동을 할 것이고 특히, 불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교 연구와 저서집필 활동도 하고 싶다"고 학문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자신있게 다짐한다. 식품공학의 외길을 걸어온 윤교수. 지금은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며 떠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을 그의 모습 뒤로는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찬 바람이 부다. (오인택 기자)



권도혁(법학과) 교수

남을 존중하고 함께 화합하며 학문에 정진하길

올해로 퇴임을 맞은 법학과 권도혁 교수는 그리 크지 않은 체구에 감색 줄무늬 양복을 차려 입은 단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젊은이의 그것 못지 않게 활기차 보인다. 많은 세월을 젊은이들과 함께 하며 겪어온 순수함을 지금까지의 가장 큰 소욕으로 여기는 그의 말이 그대로 눈빛 속에 살아있는 듯했다. 퇴임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금방 "출가분하다"고 답하는 그에게는 그동안의 역경들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던 모양이다. 81년, 이국 경주 캠퍼스에 법학과가 생긴 이래 줄곧 출강하면서 초창기의 흥취를 어렵사리 넘겼다는 권교수. 부족한 여건에서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충돌을 감내하느라 힘든 적도 많았다고 한다. 권교수가 다양한 학문의 갈래 중에서 법학(헌법)을 전공한 이유는, 법이란 인간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현 정치풍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준법정신'의 결여에 있다"며 개인의 이익을 증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뷰를 마칠 즈음 권교수는 기자의 수첩에 기소불육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 화이부동(和而不同), 자강불식(自強不息) 등의 성어를 적어주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아래와 같이 풀어주었다. "남을 존중하고 함께 화합하며 학문에 정진하기를 힘쓰라" 이는 모든 동국인에게, 나아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한결같이 당부하고 싶은 말인 듯하다. 그리 길지 않았던 인터뷰 시간동안 정리가 끝난 연구실은 그다지 쓸쓸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비록 퇴임한다고 해도 그의 가르침이 동국학우들 속에 남아 있고, 아름다운 사제간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리라. (회)

지난 18일 삼성동에서 열린 김수정, '로봇' 테리 V의 김형배, '히스테리'의 강성수, '혼자사는 남편'의 작가 윤태호씨를 만나 만화와 규제라는 주제로 담론을 나눴다. - 편집자 -

“작가 자체 검열 청소년 보호법보다 더 무섭다”

무분별 규제보다 등급제 시행 강화해야

‘건넬할 것이 없음을 위하여’ 지난 18일 서울 국제 만화 페스티벌의 행사인화를 마친 4명의 만화작가들, 그들의 술자리를 비집고 앉은 기자와의 대담은 간단한 맥주 한잔으로 시작됐다.

기자: 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후 ‘젊은 작가 모임’이 결성된 걸로 아는 데 결성 계기는?

윤태호: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후 만화 마니아들이 시작됐다.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화작가들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120여명의 만화작가들이 동참하게 됐다.

기자: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강성수: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등 11개 만화 관련 모임들이 연합하여 신문에 설명서를 내고 ‘만화의 표현 자유를 위한 만화 사랑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기자: 청소년 보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캠페인인가?

김수정: 그렇다. 만화가 청소년들에게 나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폭력적이거나 외설적이라고 지적 받는 대부분의 일본만화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모습에 찬 청소년 보호법의 철폐를 요구한다.

기자: 청소년 유행물이 널리 상용에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김수정: 현 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근본 실마리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화 탓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다.

김형배: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극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만화를 비하한다. 그리고 만화의 한 장면 장면들을 폭력에 단순 대비시키고 있다. 어떤 폭력적 단편이 만화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죄를 만화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윤태호: 만화왕국인 일본에서 만화를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작가밖에 없다. 그 만큼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만화 때문에 일본의 청소년이 폭력적이 됐다거나 외설적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의 논리라면 일본은 이미 망했겠다.

기자: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국제 만화 페스티벌을 비롯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춘천만화축제, 서울국제 애니메이션엑스포, 아시아 만화전 등 5개의 만화 축제가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이다. 이런 만화 육성 움직임과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벌어지는 만화에 대한 규제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윤태호: 마치 진치집과 초상집같은 모순된 사회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만화 축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페스티벌이나 만화 축제는 상업성에 몰든 거품이 너무 많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한 순수 만화가들의 자체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한다. 규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있다 해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만화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자: 현재 만화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 ... 청소년 보호법 시행후 혼란스런 만화계, 지금 새로운 부흥을 꿈꾼다.

김형배: 한시적인 절필 선언이 있었지만 만화를 싫고 안 사고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큰 것은 규제가 강화된 이후 작가들 스스로 자기 검열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강성수: 작가들 스스로 잦대를 세우고 스스로의 만화를 검열한다면 결국 만화책은 똑같은 얘기 똑같은 모습으로 가득찰 것이다. 인간을 똑같이 복제하는 교육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김수정: 문화는 다양해야 한다. 어떤 것을 규제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화가 야합되고 깨끗한 것일 수는 없다. 가끔은 쓰레기도 나온다. 그러나 그런 쓰레기를 타산지적의 거름으로 알고 자

라는 좋은 문화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독자층을 제한하기 위한 등급제를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화 배급자제를 막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또한 기존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다시 청소년 보호법을 만드는 것은 법을 만들므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기자: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강성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상식으로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 만화가기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그림이다. 절필 단계를 넘어서 만화를 살리기 위해 꾸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규제가 만들어 놓

은 금박으로 자유의 발을 내딛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요즘 만화가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는 기자의 기술적인 질문에 만화작가들은 밥과 술과 원정국과 꿈과 상상과 욕이라고 한마디씩 대답해 주었다. 그 중에는 ‘뽕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대답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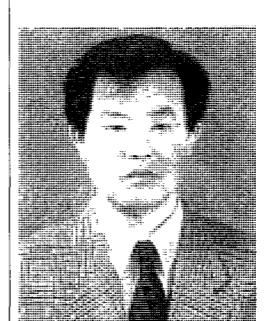
밥과 원정국은 그들의 육신의 생계였고 꿈과 상상은 그들의 정신의 생계였고 욕은 현재 만화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다그침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몸으로 하는 창작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원천일 것이다.

〈최 진 기자〉

달 하나 천 강에

의학에 대한 인식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는 일차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의학 교육과정은 기초의학 내용이 좋고 임상의학 내용이 늘어나고 있다. 내용은 임상실습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며 의사국가고시 또한 임상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의과대학은 의사를 양성하는 직업 훈련소라고도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임상직시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좋은 의사일수록 단순히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내면의 병인을 파악하여 조심스럽게 치유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표현되는 질병은 인간의 여러 본체에 있어서 어쩌면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유형성 독감을 예로 들어보자. 독감이 유행했다 해도 유행한 전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독감을 앓는 것은 아니다. 표현되는 질병은 인간의 여러 본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예 독감을 앓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같은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독감의 유행 당시 건강 상태에 따라 앓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에 따라 체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독감에 걸려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의사는 독감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치료하지만 좋은 의사는 독감의 이면에 있는 개개인의 사정까지도 상담해 준다. 찾아온 환자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치료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선 말기의 의사 이재마(1838~1900)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사상으로 분류하였다 한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러한 체질을 면역학적 또는 분자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사람의 DNA에 암호로 모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질병이라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하여야 개개인에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다.

의학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의 만큼 인간의 모든 문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도 의학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찾아오신 할머니의 삶이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질병의 배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의학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경과를 따르는 인간과학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의학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필연적인 학문이다. 의과대학이 교육 목표가 일차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인간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즉 의학은 인간을 이용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참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도와 주는 학문이 되도록 노력하는 학문인 것이다. 이에 대한 저변의 인식이 필요하다.

김 동훈 (한대의 해부병리학과 교수)

◇ 서울 국제 만화페스티벌 특별 탐간기

한국 만화 축제장으로 ‘우뚝’

‘젊은 작가전’ 신선... 상품 과다전시·상업성은 여전

올 여름, 비는 많이 안 왔지만 흥수가 난 것이 있다.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이례적으로 다섯 개나 열렸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 깊은(?) 행사가 바로 올해 3월을 맞아 서울 국제만화 페스티벌(이하 SICAF)이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 태평양관과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SICAF는 애니메이션, 출판만화, 멀티미디어, 캐릭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세계유일의 만화종합전이다.

올해의 주제가 ‘순정만화’답게 설치된 한국순정만화공전에는 캐릭터로 보는 ‘순정만화’, ‘동양·서양·화

원 등을 소재로 한 작품 소개’, ‘신일속, 강경옥, 원수연 등 인기 순정만화작가 22인의 캐리커처’ 등이 전시돼 소녀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예년과 달리 참여 대학이 많이 늘어나고 지방 소재대학도 다수 참여한 만화·애니메이션 대학, 동아리 전국 관부스에서는 신선하고 열정적인 작품들이 전시돼 21세기 만화문화의 비전을 제시했다. 참가 대학생들은 홍보를 위해 관람객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바티캐인팅을 해 주기도 했다.

“지구환경”을 주제로 한 제7회 서울국제만화전 분상 수상 작품도 전시되었는데 국내 최초로 ‘듣는 만화관’을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듣는 만화

관’이란 스피커에 귀를 살짝 대고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민요와 트로트 가요가 나오는 등 유머와 익살의 현상이었다.

‘우리 시대의 젊은 작가전’에서는 강성수, 정준이 등 1997년에 가장 각광받는 젊은 작가 12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독특한 실험정신이 깃들인 작품을 소개했다. 또한 ‘이벤트관’에서 전을 제시했다. 참가 대학생들은 홍보를 위해 관람객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바티캐인팅을 해 주기도 했다.

올해 행사는 예년과 달리 국제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작품이 상영되고, 상업부스와 일반전시장도 구별되는 등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매년 행사에 참여했다는 최미선(중앙대·2양)은 “순정만화가 주제라면 서도 주제에 걸맞는 행사가 적었고 전시장소 소개와 행사안내 방송이 없어 불편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건지 상품을 전시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해 매년 지적된 상업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올해 97 SICAF가 작년, 재작년보다 발전되었음은 분명하다. 아무쪼록 SICAF가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민형(?)으로서 각종 억압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만화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벽사기 등에서 감상문을 쓰고 있는 관람객들 ...

강철왕 카네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젠, 비철왕 LG금속을 주목해 주십시오

땀 흘려 다들 잘 아시지만 非鐵 汗 증소하시죠?
하지만 우리 생활을 둘러보면 비철이 쓰이는 곳은 많습니다

전선에 사용되는 동(銅), 냉장고·에어컨·보일러의 동파이프, 금·은 등의 귀금속까지 모두 LG금속이 생산하는 비철소재입니다.

연간 400여만톤의 동을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종합 비철기업으로 우뚝 선 LG금속 - 이제, 기초소재는 물론 첨단소재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세계적인 종합소재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LG금속

50
1947년 설립

비철재련

순도 99.99% 이상의 동을 비롯한 금속제품과 부산물인 황산, 피로제용 황산, 액체무수황산 등 최선제품을 생산합니다.

귀금속

금, 은의 피와 이를 가공한 주얼리제품을 비롯하여 백금, 팔라듐, 셀레늄 등의 희유금속을 생산합니다.

금속기공

ISO 9002 JS 등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한 동파이프 및 고기능 전기·전자부품에 쓰이는 무산소동, 국내 최대의 생산설비를 자랑하는 스테인리스파이프를 생산합니다.

특수소재

비도체용 골드본딩에어 및 TFT-LCD용 식각제, NCF용 식각제, PCB용 전해용액 등 전자재료, 자동차 배기 가스 전회체, 배수처리제 등의 환경친화소재를 생산합니다.

http://www.lgmetals.lg.co.kr

본교 시설물 낡은 옷 벗고 새단장

ATM 설치·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에 15억 투자

오는 9월말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앞두고 평가영역 중 시설·설비영역을 확충하는 학내 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가 대규모로 시행됐다.

학기 전부터 시행된 이번 공사는 방중 기간을 이용 총 15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내외부 공사와 각 건물별 공사로 나눠 시행했으며, 오는 9월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먼저 내부 공사로는 이전부터 시급했던 초고속 ATM설치 및 각 건물의 화장실 보수, 도색 작업, 정수기 설치 등이며, 외부 공사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우수관로 설치, 테니스장 철거 보수, 정문 개시관 및 현수막 같이 설치, 가로등 설치 등이다.

그 외에도 각 건물별로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생활관 생활관(관) 보일러 교체 및 보수공사, △원효관 회의실 개수 공사 및 내부 공사, 합동 강의실 및 소강당 외 자 교체, 교직원 식당 실내 장식 △진흥관 영상 강의실 증설, 기차재 구입 △화생화관 식당 취사 보일러 설치 △한의학관-실업실 전열 공사 △문무관-비다 교체 공사 △블로그 유지, 영산관 신축 공사 등이다.

이외에도 천장 보수공사와 공간 배



◇ 방중에 학내 시설 및 보수공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사진은 지대 앞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차에 따른 보수, 서울·경주간의 원격 영상 회의 시스템도 도입됐다. 한편, 방중 공사로 건물 도색 후 모든 정보 부속은 학내 기사관으로 제한되며, 문무관의 경우 비다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 시 실내화 착용을 하되 불필요한 출입은 통제한다고 밝혀 개강 이후 학생들의 미칠이 예상된다.

이에 한 관계자는 "기본적 자보는 지정된 기사관이나 정문 기사관을 활용하고, 문무관의 경우 실내화 착용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중 공사를 매듭지으며 관계자의 한 직원은 "학교 시설 및 보수공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학생들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수회, 2학기 정기총회 개최

소각장 이전 사무처에 요청

'97학년도 2학기 교수회(회장=오승세·국어국문학) 정기총회가 지난 18일 전체교수회의에 이어서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는 오승세 교수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교수회 활동 경과보고 △교원 업적 평가 연구결과 보고 △기타 안전 토의 △매회 순으로 치러졌다.

교수회 활동 경과보고에서는 3개 소위원회(위원장)의 활동을 위주로 소개했으며, 먼저 후생복지위원회 활동보고에서는 교직원 식당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학교측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경주캠퍼스 대학원 7개학과 석·박사 과정 개설 신청을 했으나 인건공과학과 석사 과정만이 허가된 상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위원회는 경

주캠퍼스 발전을 위한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교직원 1백 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는 △경주캠퍼스에 대한 전망 △행진 조직에 대한 의견 △행정관리에 대한 의견 △교류시설에 대한 의견 △연구 및 강의환경 △부충장 선출방식 등이 전반적인 학내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기타 안전 토의에서는 지난날 교수회에서 지적된 안전인 진흥관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오는 10월 예산 편성시 책정이 되도록 사무처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교수는 40여 명도 채 안 돼 2학기 정기총회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관광정보센터, 천리안 기존 메뉴 개편

경북 홈 페이지 정보제공 계약

관광정보센터(소장=하현국·관광경영학)는 지난 7월부터 경주관광정보의 기존 메뉴를 개편해 이용자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천리안내 '경주나들이'와 '나루누리' 내 '경주의 향기'가 무료서비스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고, 오는 9월초에는 유니텔도 개편되며 접속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초기화면에서 go button을 입력하면 된다.

천리안의 개편된 내용을 보면 △1번-경주미리 보기-경주탐방전의 신라유적지 예술품 소개 △5번-경주관광의 지류별 종합정보 수록 △6번-경주특산물 소개 △7번-추천 관광코스 △자료실을 사진과 문서자료로 나눈 참고 자료 등이다.

그 외에 문화행사, 게시판, 공지사

항, 운영자에게 묻고 답하기 등도 있다.

관광정보센터는 지난 5월달에 메뉴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학생 2백 5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설문조사와 관련해 정보센터 측은 "대외적으로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나 교내에서는 아직까지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정보센터는 방중에 경상북도와 경주관광지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약체결에 2천여 만원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 학생회를 진단한다

총학사업 대신할 비대위 구성 시급

안이한 모습 벗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총학 단핵(지난 5월 21일) 이후 2학기 총학사업을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개강일인 오늘(25일)까지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총학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실추된 학생회의 위상과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학기 각 단체 및 자치기구장들은 대동계공동준비단(단장=오문식·불대회장)을 구성해 총학이 없어도 불구하고 '입석대동계'를 공동으로 치른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대동계를 준비하며 보였던 단결력을 상실한 채 개강을 한 이 시점까지 제대로 된 회의 하나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방중인 지난날 20일 경에 한 차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를 열어 비대위 구성과 한총련 탈퇴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14개 단체 및 자치기구장 중 7개 단체장만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비대위 구성여부는 논의되지 못한 채 당시 학내외적으로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총련 탈퇴 부분만을 논의한 끝에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한차례 더 회의가 소집됐지만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회의체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8월 21일 총대 정기총회를 통해 총학 탄핵시 1개월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학생회칙까지 개정하며 총학 사업을 비대위에 일임할 수도 없고, 현재 3개월 기량이나 학생회 사업이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심지어 몇몇 단체장과 간부들은 2학기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방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학생회 사무실을 비우는 등의 모습을 보여 학생 간부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앞으로 '비대위' 차원에서 학생회가 해야 할 일들은 현재 학교측 차원에서 논의 중인 '공간 재배치' 문제를 비롯한 '백상체제' 준비, 오는 9월 말부터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관한 부분과 그 밖에 '96학년도 학생회 선거' 등의 구체적인 사업부터 학생들의 작은 복지사업까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에 학생회가 보인 모습은 학생들과 학생회 간의 괴리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오늘(25일) 오후 2시 중은위를 통해 비대위 구성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자치기구장은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할말이 없으며, 학생회 자체적으로도 자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고 밝힌 뒤 "오늘(25일) 회의가 끝난 뒤 비대위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생회가 안이한 모습을 벗고 학생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학생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경 기자)

도서관 전산화 사업 활발히 진행

도난방지 시스템 및 검색기 설치

도서관(관장=김신학·국문학)은 일반 도서실에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자전 서울캠퍼에 설치된 기기와 동일한 것으로 대출처리를 받지 않고 시스템 통과시 경보·경광·출구 잠금장치가 작동한다.

이에 따라 책의 도난 방지는 물론, 이용자가 타 도서 및 기기를 소지한 채 입실시 가능해 개인 소지품 분실 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관은 97년 5월 이전에 발행된 일반 어린이 도서를 구입해 배치할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산관이 완공되어 학군단이 이전하면 그 공간을 일반도서실로 이용하여 장서를 재배치하고 열람 좌석도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일반도서실·참고자료실·정기간행물실 등의 도서 검색 컴퓨터도 580으로 새로 배치해 검색 속도가 빨라졌다.

또 늘어난 장서의 관리와 도서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새 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서울캠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주·서울간의 교류가 가능하고 검색자료가 상세하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지금 전자도서관에서 새 검색 프로그램의 설치 작업을 진행중이며 2주 내에 완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자신문 같은 볼 형태의 마이크로 필름 자료를 읽을 수 있는 필름 리더기 1대를 정기간행물실에 설치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필름 자료도 구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서관 복사실 뒤에 있는 기존의 도서복합 열람실을 전자도서실로 변경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자도서실에는 필름 자료 열람은 물론, 이면에 함께 들어온 비디오 플레이어 2대도 설치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료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도서관은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있는 기존의 도서관 자료들을 대폭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신라문화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

하여 보충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이다.

지대원 후기 학위 수여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희오·국제관계학)은 내일(26일) 오전 11시 소강당에서 96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치렀다.

이번 후기 졸업자는 석사학위 취득자 9명, 관리자 과정 44명 등 총 53명이다.

한편, 제16기 졸업생 및 17기 재학생들은 지난 20일 조선훈예 반월성홀에서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졸업생 환영회'를 치렀다.

또한, '제18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신청'은 오는 28일에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대원은 2학기의 강의시간을 30분 앞당겨 1교시를 오후 7시부터 6시 30분으로, 2교시를 8시 30분에서 8시로 조정했다.

의료원, 증축공사 60% 공정률 보여

주차 유료화 실시로 주차난 해소

경주병원(원장=서정옥·일반외과) 증축공사가 25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증축공사의 내역을 보면 △지하 1층-종합건강검진센터 △1층-인공신장실 △2층-외래진료실 △3층-신생아실, 분만실 △4층-중환자실, 교수연구실 △5층-병실 △6층-교수연구실 △7층-사무실 △8층-병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오는 12월말에 완공될 증축건물은 중년 의료원에서 이전하는 식이며, 이로 인해 현 의료원의 빈 공간은 병실이나 기존 진료실 공간을 넓히는 식으로

이용된다.

한편, 의료원 측은 지난 7월 14일부터 1시간 당 1천원씩 징수하는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다.

심각한 의료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주차 유료화는 그 수익금을 이용해 △주차관리원의 인건비 △고정 관리비 △장비 시설비 등에 쓰인다.

유료주차시행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주차난은 크게 해소되었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이도 있고, 주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도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선집중

공간 초월



◇ 지난 18일 서울·경주간 원격영상회의가 처음으로 시도됐다. 사진은 소강당에서 동시 영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해경 기자)

불교란 무엇인가

지(地)타(地)교(交)의

연(延)기(期)시(時)가(加)

수(受)교(交)의(意)의(義)

사(社)교(交)의(의)의(義)

불교의(의)의(義)

수(受)교(交)의(의)의(義)

모집안내

지원자격

-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단, 불교영역은 고졸이상)

모집방법

- 지원자의 선착순 등록 (일부과정은 서류전형과 면접)

모집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1997. 8. 18(월) ~ 8. 29(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 토요일 공휴일 휴무
- 등록 : 원서접수시

특기사항

- 동국대학교 총장명의의 수료증서 수여
- 본교 박물관 등 시설이용
- 학생증발급
- 부속병원이용시 할인혜택
- 해외자매대학 연수 및 견학
- 포교사 자격취득요건 (단, 불교전문교과과정 및 '동국TV불교 아카데미'에 한함)

'97학년도 가을학기

수강생모집

접수 : 8월 18일부터

개강 : 9월 8일

The Institute for Social Relevant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 TEL : (02) 260-3728~29 / FAX : (02) 260-3730

과정명	분야	세부과정명	과목명	주-야간
교과목과정	불교	불교란 무엇인가 I	1학기 주간	
		불교란 무엇인가 II	1학기 주간	
	종교	종교의 이해와 실제 I	1학기 주간	
		종교의 이해와 실제 II	2학기 주간	
	문화	오원만	2학기 주간	
		오후만	2학기 주간	
	사예 (한글·한문)	사예	2학기 주간	
		재미있는 사예	1학기 야간	
	영재	영재교육과정	2학기 주간	
		영재교육과정	1학기 주간	
건강	신앙강 (종교학)	1학기 주간		
	신앙강 (종교학)	2학기 주간		
가정	가정문화와 종교	1학기 주간		
	가정문화와 종교	1학기 주간		
교육	지대의 영성교육 (종교학·신학)	1학기 주간		
	부유층,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교육을 위한) 표현예술치료	1학기 주간		
연교과정	불교의 문화	2학기 주간		
	불교의 문화	1학기 주간		
연교과정	불교의 문화	2학기 주간		
	불교의 문화	1학기 주간		
특별과정	연교과정	2학기 주간		
	연교과정	2학기 주간		
유기과정	유기과정	1학기 야간		
	유기과정	1학기 야간		

동국 참사랑 봉사단 첫 활동시작

3백여참여자 "보람찼다" 평 ... 참여확대 방안은 더 고민해야

지난 4월에 처음 결성돼 본교 학생·교직원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식향상과 봉사지원을 목적으로 한 '참사랑 봉사단'의 97년도 여름방학 사회봉사활동이 끝났다.

봉사단은 이번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들에게 봉사단체의 결과보고서와 소감문을 근거로 1회에 한하여 1학점을 부여하고 필요시엔 사회봉사 인정서를 발급한다.

크게 시민단체, 장애인 복지단체, 사회복지단체, 유아·청소년 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되었던 봉사활동은 점차 도서관 업무보조, 탁아교실, 중등부 교사, 부패관련 자료 스크랩 등의 총21개단체 53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여름봉사활동에 참가한 나운석(전지3)군은 "비록 힘들고 정신적 부담은 많았지만 무엇보다 해보고야 말았다는 결의와 함께 보람있는 일을 스스로 해냈다는 가슴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봉사활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동안 연 4회 실시하며 이번학기의 경우엔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장학과에서 가입신청서를 받아 9월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2



사진은 손짓사회의 봉사활동모습이다.

개월간 실시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동국참사랑 봉사단은 △청소년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전화상담 프로그램 실시 △중구지역의 사회봉사 협의회 구성 △명인을 위한 남독 봉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 표창과 함께 학과(전공)별·동아리 별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일정 정도의 장학금 지급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약 50여명의 불참자, 개인별로 봉사활동이 일시적인 참여에 머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풍토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저조 등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목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 해결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일정 정도의 장학금 지급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약 50여명의 불참자, 개인별로 봉사활동이 일시적인 참여에 머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풍토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저조 등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목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 해결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처, 번역·저서 연구비 지급

연구의욕 고취 ... 본교 위상 제고 기대

연구교류처(처장=박기덕·수학) 연구부는 97학년도 저서 및 번역연구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난 4일 총장실에서 6명의 교수들에게 지급했다.

이 계획은 논문위주로 편중된 지원을 저서 및 번역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본교 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술 및 번역 연구업적의 대외 발표를 통해 본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금년 처음 실시해 지난 6월경 '저서 및 번역연구비 연구과제'를 공모한 바 있다.

총59편의 저서 및 번역 연구자료

중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교수들은 이에 따라 저서분야 각 6백만원, 번역분야 각 4백만원씩을 지원받았다.

한편 지급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저서분야=이기동(인문학부)·신라사학회 연구, 연기영(법학)·생산물론해배상책임론, 박노성(경제통상학부)·국제협상의 분석과 전략 △번역분야=황종연(한국어문학부)·컬럼비아 대학관현대문학 및 문화비평 용어사전, 고재석(국교과)·일본현대문학사, 강태호(경주학 조경학)·중국 전통조경의 공간구상 기법 분석

중도, 5백여권기증받아

정년퇴임한 산업공학과 김유송 교수,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관영·광고3), 고 이범신(전 방송인)씨 유족이 중앙도서관(관장=임효원·독어독문학)에 총 4백 46권의 책을 기증했다.

김유송 교수는 '경영수학응용', '근대경제론' 등 일반서적 2백권, 학생복지위원회는 '역사신론', '금융경제론' 등 교재용 서적 1백 76권, 그리고 고 이범신씨 유족은 '고궁철기선화' 등 중화민국도서관 소장 도서 71권을 기증했다.

도서관 수서·세무계의 김종철 교수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 기증됐다"고 밝히며 기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한국문학연구소, 장학금 전달

미당창작문학상 당선자들에게...권경성 동문 기탁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는 지난 22일 제 1회 '미당창작문학상' 당선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연구소측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총복 보은 법사에서 열린 '제1회 여름 창작교실'에 출품된 시 1백4편, 소설 13편, 국문학 7편을 심사해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 2 명씩 선발하여 각각 1백20만원, 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미당창작문학상은 권경성(국문 64점·태영교과대표이사)등문이 장학금을 기탁한 것으로 동국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문학과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갖는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시부문 △최우수=박관식 △우수=채상우 ◇ 소설부문 △최우수=이여호 △우수=정환정 ◇ 국문학부문 △최우수=김수경 △우수=박진규 이상 6명

야구부 추계리그 출전

오는 27일 흥익대와 첫대결

본교 야구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리는 97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전에 출전한다.

총 19개팀이 4개조로 나뉘어 리그전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27일 흥익대의 경기를 시작으로 29일 경성대, 다음달 3일 중앙대, 6일 경남대 등과 예선 경기를 치른다.

한편 추구부는 97전국추계대학야구연맹전에 출전했지만 지난 21일 현재 충북대와 명지대에 패해 예선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체육부의 조정기 교수는 "추구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힘든 경기가 된 것 같다"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다.

학·전·무·대

다이어트의 비결

0...요즘 들어 '신기'에 가까운 다이어트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날자가 있는데.

1백70cm의 키에 몸무게가 45kg 밖에 안되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수치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넘어 감탄.

특히 아직 군대를 가지 않은 남자들의 경우 그 비법을 알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이라고.

이에 이 비법을 안다는 한 다이어트 전문가 보통사람은 힘든 거라며 한마디 "이것은 대신표의 왕창 다이어트입니다"

새책공부

0...다음 중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삼일교문을 지낸 오익재 전 한도교령의 율복을 빌미로 색깔 논쟁을 펼치는 이유는?

- 1.이회창대표가 색깔에 나타난 조여가 있기 때문이다.
- 2.DJ가 색깔이기 때문이다.
- 3.이회창 대표의 아들 병역문제를 색깔론에 화석시켜 지지율 반전의 기로로 삼기 위해서다.
- 힌트:정답은 조금 깊니다.

인플레이션

0... '찬 바람이 불면, 적어주세요' 울 12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도 도종 합승과 교리를 무는 누구누구의 출마설도 후보 공급이 '과잉'이라는 데.

후보들마다 자기 세력 확장과 표 획득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이에 회전문대자 한마디 "후보 공급 과잉은 비리 인플레이션을 낳는다."

신의 축복(?)

0...지난 15일 조선대에는 범민족대회를 치르기 위해 전국에서는 9백여명의 시민과 학생이 모였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목적(?)을 알아채는지 어느새 하늘에는 경찰헬기 2대가 경정하듯 공중 퍼레이드를 벌였다.

퍼레이드도 잠시, 퍼붓듯 뿌려대는 최루액에 진절이 난다는 한 학생 과거가 생각났다며 한마디 "올해도 어김없이 93년 당신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군요!"

서울·경주캠간 영상회의 실시

지난 전체 교수회의서 처음 선보여

97년 2학기 전체교수회의가 지난 18일 90년주년 기념관 예술극장과 경주캠 소강당2에서 동시에 열렸다.

처음으로 서울·경주 동시원격 영상으로 실시된 이날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양캠간 동시 영상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21세기 정보대학을 표방하는 본교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원격 영상회의는 △삼귀의례 △국인의례 △이시정 치사 △총장인사 △신규교원 소개 △우수교수의 계획서 선발과 시상 △부처님 업무보고 △특강 △캠프별 정기 교수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학사보고를 겸해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송석구 총장은 "전체교수회의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되는 만큼 당분간은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도, 양캠프의 동시성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양캠 부처님 업무보고 뒤 이어진 특강에서 장오현 교무부 고등교육실장은 '대학교육개혁 정책의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일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화상회의를 준비한 전자계산소 측은 "앞으로 교수회의를 비롯한 학술세미나, 교양강의까지도 동시 영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직원노조, 정기총회 개최

노동조합(위원장=김정숙)은 오는 27일 오후 5시 본교 중앙당에서 97년도 노동조합정기총회를 갖는다.

노조는 22.3일 진행된 간부수련회에서 논의된 7대 노동조합 1차년도 사업평가와 2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2차년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승인 △기타 등의 안건을 토론회로 부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0일 교수회의실에서 정기노사 협의회를 열어 사무기능직 직종전환과 전기실, 기관실 근무체계 개선 등을 학교측과 협의 했다.

편입생 2백18명

최대경쟁률 10대1 기록

입학과(과장=하정운)는 지난달 28일 편입 시험을 실시해 2백18명의 편입생을 선발했다.

학사 편입은 31명 모집에 41명이 지원해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학년 편입은 63명 모집에 6백39명이 지원해 10.1대 1, 3학년은 1백24명 모집에 8백6명이 지원해 6.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달 17일에 시간제 등록제생 72명을 모집했다.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는 96학년도 후기 졸업 대상자 중 생활에 출자한 학생 45명에게 출자금을 환발한다.

환불금액은 출자금 1만원과 기념품이며, 졸업식 당일에는 행사장 입구에서 본인지정 수령하고, 졸업식 이후에는 생활 사무국(혜화관 1층, 260-3590)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출자금 수령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3491



◇ 침입자...

지난 14일 새벽 아간강자 총학생회실을 비롯한 12개 학생회실이 외부인에 의해 훼손됐다. 확실한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어 학생들을 안타깝게 하는데, 사진은 광고학과 학생회실에서 깨진 유리 파편과 부서진 집기를 치우는 학생들의 모습

(오인택 기자)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안내

1. 기간 : 97. 8. 27(수) - 8. 29(금)
2.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
3. 대상 : 전교생(이반학기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이번 기간에 수강신청할 것)
4.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원 배부 : 각 대학 교학과 및 학부(과)
5. 유의사항
 - 가. 개인별로 배부되는 수강신청확인원에 본인의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정원을 작성하여 PC정정용 교학과에 제출할 것.
 -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다. 동일 교과목의 이중 신청시 학점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수강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바람. 단, 재수강은 '96학년도 1학년 대상 교과목(신교육과정 교과목) 성적 취득자에 한해 가능함.
 - 라.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교양교과목 및 일부 전공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교과목의 수강제한인원 범위내에만 수강신청 정정이 가능함.
 - 마. 시간표의 변경사항(분반, 폐강 등)은 조정강의시간표 및 각 대학 교학과에서 확인하기 바람. 자세한 수강신청 정정요령은 종합강의시간표내 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람.

교무처장

특별시험안내

1. 시험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교양필수	RGC 005	컴퓨터실습1	2
교양필수	RGC 009	실용영어2	1
교양필수	RGC 007	영어회화2	1
2. 응시자격 및 과목 신청
 - 가. 자격: 97학년도 1학년 재학생(1학년 복학생 포함).
 - 나. 과목: 2과목까지(3학점 이내).
3. 시험일시: 97. 8. 30(토) 9:00부터
4. 전형료: 과목당 3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97. 8. 25(월) - 8. 27(수)
 - 나. 장소: 교무처 교무과(접수시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6. 전형방법
 - 가. 컴퓨터실습1: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하게 한 후 이의 내용을 근거로 평가(실습테스트).
 - 나. 실용영어2: Native Speaker가 녹음된 테이프를 들은 후 평가.
 - 다. 외국인 교수와 Interview로 전형.
7. 합격자 발표: 97. 9. 2(화) 15:00(예정), 교무과
8. 합격후 성적: A+, A0

교무처장

귀향사업 안내

1. 귀향사업의 취지

학우들(조합원)이 학내에서 이용하는 생활협동조합(생활)관리하의 수익 사업 수익금을 생활의 취지에 맞게 학우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것과 그동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눌려 개별화, 파편화된 동학인에게 한가위 기간동안 한 데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삶을 느끼게 하고 개인주의화된 동학인을 하나된 동학인으로 묶고자 생활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지 공동체 사업
 2. 귀향사업 내용
 - 1) 교통편 제공

비행기편(제주도 왕복권)
출발시간 : 귀향-9월12일 오후 2시, 귀경-9월18일 오후 7시
출발장소 : 귀향-김포공항, 귀경-제주공항
비용 : 기존 항공권의 30%를 할인
 - 2) 버스편

출발 : 9월12일 오전 10시
출발장소 : 대운동장
비용 : 5천원(도시락+기념품)
 - 3) 숙박

예매기간 : 9월1일-9월5일
예매장소 : 중앙도서관 앞
환불기간 : 9월8일-9월9일
환불장소 : 학생복지위원회
- 버스나 비행기표의 환불은 환불기간외에는 절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방학중 외국어 특강 안내

구분	English Conversation	English Composition	TOEIC	Listening			
1차	오전 7:30 Troy Body (강의실 A)	Nicholas Garrison (강의실 A)	Dennis Prieto (L206)	Janet Glendinning (L309)	Martin Sherred (Lab A)	없음	
	오후 5:00 Leon kaye (강의실 A)	Angelika Gatos (강의실 B)	Paul Leslie (L310)	Irene Hanssen (L309)	Roy Partain (Lab A)	없음	
2차	1차와 동일				없음		
	1차와 동일						
수강료	수강료 5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기간	1차 : 97. 9. 1~10, 17/2차 : 97. 10. 20~11. 28(24주)						
접수처	외국어교육원(동국관 L50)						
접수기간	접수기간 97. 8. 25부터 선착순 마감						

외국어교육원

영상매체비평

3류 현실 1류 연기로 승화

영화 - 넘버3 전편에 흐른 한국정서 '고사성어' 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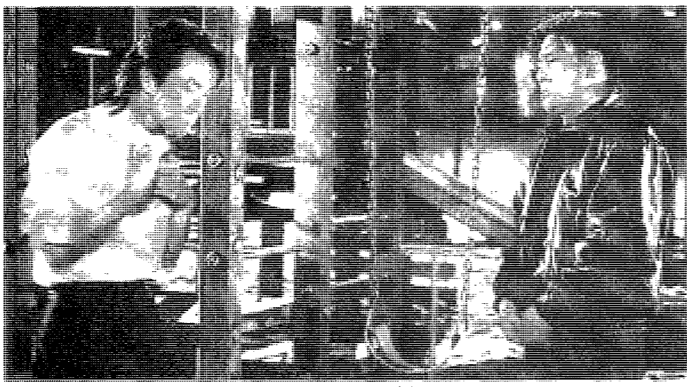
정재형

〈연극영상학부 교수·영화평론가〉

송능한 감독의 '넘버3'는 '태백산맥'을 각색했던 유능한 시나리오 작가의 첫 번째 연출작.

장르적으로는 코미디? 갱영화? 글썽. 과거에, 적어도 90년대 이전에는 흔치 않았던 새로운 장르이다. 소위 복합장르거나 잡종장르라고 부른다. 지배적인 장르는 갱영화이지만 코미디의 요소를 진하게 가미해서 웅장한 코미디보다도 더 웃긴다. 그러나 이 영화에 코미디언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갱영화의 무거움을 코미디로 거세하고 있다. 본래 갱영화의 기본 줄거리 중 하나는 삼류 경이 일류가 되고자하는 욕망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삼류 경이 일류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갱영화 도식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에 코미디를 거머쥘 기법적 처리한 이유는 영화를 현실의 무게로 처리하고자 각색한 감독의 숨은 배려 때문이다. 영화 문맥적으로 지금 상황은 진지함·무거움보다는 가벼움·코미컬함이 통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암수함, 보수성에 숨통이 막혀있는 대중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 보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감독은 현실의 암수함을 통렬히 풍자하고 싶었던 것이다. 삼류라는 후진국의 현실을 솔직히 공감하게 만들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삼류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자



◇ 태주(한석규)와 동필(최민식)의 싸움 무승부.

아비판하게 만든다. 그런 종자정신은 대단히 우리 현실에 기반한 각색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이 영화는 나름대로 한국적인 주제 의식을 갖는다. 보편적으로 갱영화가 부여하는 갱들 내부의 선악 이분법적 갈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사회비판적 시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연기자들의 연기력이다. 주인공은 서열 3위의 강패 태주(한석규)이긴 하지만 그는 별반 큰 의미가 없다. 거의 비슷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약력 검사 마동팔(최민식), 불사파의 두목 조필(송강호), 재벌을 날리는 서열 2위 강패 재철(박상민), 사인이 되고 싶은 강패의 아내 현지(이미연), 거짓 시인 랑보(박광성), 불래 바람피우는 강패두목의 아내 지나(방은희), 그리고 강패두목 강도식(안석환),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도합 8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멋진 앙상블의 연기자들이다. 이들이 펼치는 최상의 연기 하모니를 본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값진 교훈을 얻게 된다.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고 처절하게 재미있다는 교훈 말이다. 외국인들이 이 대륙에서 이리든 동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화는 한국적인 정서 기반을 갖는다. 특히 고사성어를 이용한 개그 장면은 이 영화의 가장 한국적인 연출력이 돋보이는 일련의 장면이다.

공은 심의 과정에서 이 영화는 욕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받았는데 제작사에서 요청한 등급은 분명 성인영화였다. 공론의 기준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들도 이 영화처럼 욕이 많이 들어간 영화는 보지 말라는 식이다. 개새끼들이다. 누굴 아녀자로 야? 욕이 이런 동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이 영화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 '아웃사이드'가 생기는 대학문화 진단

"요즘 대학 아웃사이드가 증가한다" '참여와 연대' 중심으로 개인주의 극복해야

그 친구는 아웃사이드

새내기들이 대학에 첫발을 내딛고 6개월 쯤 지나면 자신의 소속집단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된다. 소모임이나 동아리, 과나 단과대 학생회 혹은 학습모임 등이 그 집단의 대부분을 이룬다. 어떤 모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되고 관심분야나 의식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대학 사회에 적응해 간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근래는 어떤 집단에도 동참하지 않는 '아웃사이드'가 증가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아웃사이드란 어떤 일에 관해 전문지식이나 소양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는 과를 비롯하여 학내 어떤 모임에서도 얼굴을 찾아보기 힘든 학생들을 '아웃사이드'라 지칭한다.

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물예요? 공부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을까요?"

이제 새내기 티가 남아있는 송중찬(반도체)군의 대답은 물음표로 끝났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실 재학생들 대부분이 막연한 학업을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얼굴 보기 힘든 친구 수가 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80년대가 말하는 90년대 대학문화

여러명이 등사기를 밀어 선전물을 만들던 시대에서, 개인이 혼자서 무수히 많은 익명의 독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대로 변화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의 정서도 변화했다.

87학년 김진형(94 영문 졸)씨는 90년대의 문화를 '취움과 안정성 그 안에서의 경쟁'으로 평가한다. 80년대

암울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시대였다면 90년대는 자신의 욕구를 위해 자신을 가꾸는 극히 인간적인 시기라는 것이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어나가는 모습에서 욕구 충족을 위해 남이 일컫는 것들이 쉽게 인주하는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고 말한다.

90년대가 말하는 지금의 대학문화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공간인데도 학생들은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대부분의 공간을 내버려두는 것 같다". 공대소모임 '빛놀이'에 참여하는 이주경(공학계열2)은 대학생이 기존의 문화를 지키는 것조차도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익기(사회학)교수는 "시대의 변천 속에서 집단 내 자신의 존재를 찾기보다는 개인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찾아 나서는 개인주의가 대학문화에 흘러들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런 변화들이 쌓여 한때 대학에서 가장 활발했던 대자보 문화가 단숨에 행사가 알려지며 공공질서를 지키자는 수준의 포스터로 전락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정체된 대학문화의 결과인가?

현재 대학 문화를 다양한 문화로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남철우(92 농경 졸)씨는 89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동아리나 학생회 참여만으로 특혜를 누리라는 단상을 느꼈다고 전한다.

다양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오늘의 대학문화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전자가 다양한 문화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반면 후자는 그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 과학생화실과 캠퍼스의 휴식공간이 썰렁하다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 혹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중문화나 언더문화로 집단이동하고 있다.

대중문화 선호 문제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중문화로 흘러가는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선호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일제 식민통치 이후 여러 가지 유입된 미국식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우리의 대중문화는 다분히 소비지향적인 상업성에 물들었다. 상업에 물든 대중문화가 학생들을 대중문화의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결국 가진 것이 없는 학생들은 자연히 소외되거나 소외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내 친구를 부르기 위한 몸짓

현재 대학문화는 기존의 8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그러나 뭐라 규정하기 힘든 단계에 와 있다. 흔히 말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혼란기에 나타나는 대학에서 일탈되어 가는 구성원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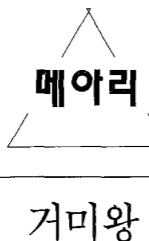
대학에서 구성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마도 너무 뻔한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학문화의 혁신'을 꾀하는 일이다. 자본주의 소비문화를 배제할 수 없는 대중문화를 지양하고 개인이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의 모습을 보일 때만이 혁신은 실현될 수 있으며 학생들로 가득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문화에 물들었다. 상업에 물든 대중문화가 학생들을 대중문화의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결국 가진 것이 없는 학생들은 자연히 소외되거나 소외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친다.

(최진 기자)

알림

이번호부터 고대생(미술학과 4)군의 '작은'에 이어 신유현(미술학부 2)의 '동이가 연재'됩니다.



매아리 거미왕

▲장마철 폭우가 쏟아진 후 기와집 처마 밑에는 어둡고 거미왕이 기다리고 있다. 폭우로 망가진 자신의 발줄을 수선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위(방적 돌이)에서 보이지 않는 실을 무수히 뿜어 낸다. 그런 능숙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구역(삶의 터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재장비되고, 자신의 방과 맛이 짜여진다. 그런 거미들은 서로의 구역을 정해 놓고, 그 영역에 침입하는 침입자들을 앙상한 껍질만 남긴 채 빨아 삼킨다. 그러나 거미들은 벌레들의 터전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우리와 아주 먼 곳 같은 으스스한 아수 가까운 곳, 우리나라의 최고 산봉우리에도 대단히 위풍당당한 거미왕이 살고 있다고 한다. 그 거미왕은 자신의 은밀한 부위에서 뿜어 낸 거미줄을 우리나라

가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한 거미왕도 지금은 불안한가 보다. 새로운 거미왕이 일에서 깨어날 때쯤 자신도 처마 밑에 걸릴 신세가 두려운 거다.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다리와 다리 사이에서 뿜은 굵직한 거미줄을 '검찰총장' 집무실에 걸쳐 놓으려 한다. ▲검기만 할 '검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자기가 살던 거미집을 내줘야 할 시기를 내다보고 즉각한 거미줄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거미왕이 출현하게 되면 재 아무리 굵고 끈끈한 거미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먼지만 붙은 채 온 집안에 너털너털 걸리라는 것을, 또한 새로운 거미왕이 앞에서 나타나기 위해 정치적으로 굵주렸던 침자를 옮겨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가 보다. 개구리가 울렁이 시절을 잊어버리다. <신>



학교법인 동국학원 동국대학교 예·결산공고

법인회계 자금계산서 (법인일반업무회계)		학교회계 자금계산서 (교비회계 + 기성회비회계)		종합대학대조표 (법인회계, 학교회계, 수익사업회계 및 영영회계 종합)		법인회계 자금예산서 (법인일반업무회계)		학교회계 자금예산서 (교비회계 + 기성회비회계)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담기 자금 수입	7,135	1. 담기 자금 지출	6,886	1. 담기 자금 수입	117,510	1. 담기 자금 지출	6,082	1. 담기 자금 수입	118,435
1.1. 담기 자금 수입	6,079	1.1. 담기 자금 지출	6,800	1.1. 담기 자금 수입	49,848	1.1. 담기 자금 지출	5,531	1.1. 담기 자금 수입	90,428
1.2. 담기 자금 수입	1,056	1.2. 담기 자금 지출	80	1.2. 담기 자금 수입	66,789	1.2. 담기 자금 지출	769	1.2. 담기 자금 수입	9,378
1.3. 담기 자금 수입	4,215	1.3. 담기 자금 지출	300	1.3. 담기 자금 수입	182	1.3. 담기 자금 지출	4,610	1.3. 담기 자금 수입	15,882
2. 국고보조금 수입	669	2. 국고보조금 지출	75	2. 국고보조금 수입	15,111	2. 국고보조금 지출	152	2. 국고보조금 수입	1,785
2.1. 국고보조금 수입	632	2.1. 국고보조금 지출	223	2.1. 국고보조금 수입	6,970	2.1. 국고보조금 지출	111	2.1. 국고보조금 수입	2,512
2.2. 국고보조금 수입	37	2.2. 국고보조금 지출	52	2.2. 국고보조금 수입	8,141	2.2. 국고보조금 지출	41	2.2. 국고보조금 수입	1,273
3. 기탁금 수입	3	3. 기탁금 지출	4,423	3. 기탁금 수입	2,392	3. 기탁금 지출	11	3. 기탁금 수입	4,538
3.1. 기탁금 수입	3	3.1. 기탁금 지출	4,423	3.1. 기탁금 수입	2,392	3.1. 기탁금 지출	11	3.1. 기탁금 수입	4,538
3.2. 기탁금 수입	0	3.2. 기탁금 지출	0	3.2. 기탁금 수입	0	3.2. 기탁금 지출	0	3.2. 기탁금 수입	0
3.3. 기탁금 수입	0	3.3. 기탁금 지출	0	3.3. 기탁금 수입	0	3.3. 기탁금 지출	0	3.3. 기탁금 수입	0
3.4. 기탁금 수입	0	3.4. 기탁금 지출	0	3.4. 기탁금 수입	0	3.4. 기탁금 지출	0	3.4. 기탁금 수입	0
3.5. 기탁금 수입	0	3.5. 기탁금 지출	0	3.5. 기탁금 수입	0	3.5. 기탁금 지출	0	3.5. 기탁금 수입	0
3.6. 기탁금 수입	0	3.6. 기탁금 지출	0	3.6. 기탁금 수입	0	3.6. 기탁금 지출	0	3.6. 기탁금 수입	0
3.7. 기탁금 수입	0	3.7. 기탁금 지출	0	3.7. 기탁금 수입	0	3.7. 기탁금 지출	0	3.7. 기탁금 수입	0
3.8. 기탁금 수입	0	3.8. 기탁금 지출	0	3.8. 기탁금 수입	0	3.8. 기탁금 지출	0	3.8. 기탁금 수입	0
3.9. 기탁금 수입	0	3.9. 기탁금 지출	0	3.9. 기탁금 수입	0	3.9. 기탁금 지출	0	3.9. 기탁금 수입	0
3.10. 기탁금 수입	0	3.10. 기탁금 지출	0	3.10. 기탁금 수입	0	3.10. 기탁금 지출	0	3.10. 기탁금 수입	0
3.11. 기탁금 수입	0	3.11. 기탁금 지출	0	3.11. 기탁금 수입	0	3.11. 기탁금 지출	0	3.11. 기탁금 수입	0
3.12. 기탁금 수입	0	3.12. 기탁금 지출	0	3.12. 기탁금 수입	0	3.12. 기탁금 지출	0	3.12. 기탁금 수입	0
3.13. 기탁금 수입	0	3.13. 기탁금 지출	0	3.13. 기탁금 수입	0	3.13. 기탁금 지출	0	3.13. 기탁금 수입	0
3.14. 기탁금 수입	0	3.14. 기탁금 지출	0	3.14. 기탁금 수입	0	3.14. 기탁금 지출	0	3.14. 기탁금 수입	0
3.15. 기탁금 수입	0	3.15. 기탁금 지출	0	3.15. 기탁금 수입	0	3.15. 기탁금 지출	0	3.15. 기탁금 수입	0
3.16. 기탁금 수입	0	3.16. 기탁금 지출	0	3.16. 기탁금 수입	0	3.16. 기탁금 지출	0	3.16. 기탁금 수입	0
3.17. 기탁금 수입	0	3.17. 기탁금 지출	0	3.17. 기탁금 수입	0	3.17. 기탁금 지출	0	3.17. 기탁금 수입	0
3.18. 기탁금 수입	0	3.18. 기탁금 지출	0	3.18. 기탁금 수입	0	3.18. 기탁금 지출	0	3.18. 기탁금 수입	0
3.19. 기탁금 수입	0	3.19. 기탁금 지출	0	3.19. 기탁금 수입	0	3.19. 기탁금 지출	0	3.19. 기탁금 수입	0
3.20. 기탁금 수입	0	3.20. 기탁금 지출	0	3.20. 기탁금 수입	0	3.20. 기탁금 지출	0	3.20. 기탁금 수입	0
3.21. 기탁금 수입	0	3.21. 기탁금 지출	0	3.21. 기탁금 수입	0	3.21. 기탁금 지출	0	3.21. 기탁금 수입	0
3.22. 기탁금 수입	0	3.22. 기탁금 지출	0	3.22. 기탁금 수입	0	3.22. 기탁금 지출	0	3.22. 기탁금 수입	0
3.23. 기탁금 수입	0	3.23. 기탁금 지출	0	3.23. 기탁금 수입	0	3.23. 기탁금 지출	0	3.23. 기탁금 수입	0
3.24. 기탁금 수입	0	3.24. 기탁금 지출	0	3.24. 기탁금 수입	0	3.24. 기탁금 지출	0	3.24. 기탁금 수입	0
3.25. 기탁금 수입	0	3.25. 기탁금 지출	0	3.25. 기탁금 수입	0	3.25. 기탁금 지출	0	3.25. 기탁금 수입	0
3.26. 기탁금 수입	0	3.26. 기탁금 지출	0	3.26. 기탁금 수입	0	3.26. 기탁금 지출	0	3.26. 기탁금 수입	0
3.27. 기탁금 수입	0	3.27. 기탁금 지출	0	3.27. 기탁금 수입	0	3.27. 기탁금 지출	0	3.27. 기탁금 수입	0
3.28. 기탁금 수입	0	3.28. 기탁금 지출	0	3.28. 기탁금 수입	0	3.28. 기탁금 지출	0	3.28. 기탁금 수입	0
3.29. 기탁금 수입	0	3.29. 기탁금 지출	0	3.29. 기탁금 수입	0	3.29. 기탁금 지출	0	3.29. 기탁금 수입	0
3.30. 기탁금 수입	0	3.30. 기탁금 지출	0	3.30. 기탁금 수입	0	3.30. 기탁금 지출	0	3.30. 기탁금 수입	0
3.31. 기탁금 수입	0	3.31. 기탁금 지출	0	3.31. 기탁금 수입	0	3.31. 기탁금 지출	0	3.31. 기탁금 수입	0
3.32. 기탁금 수입	0	3.32. 기탁금 지출	0	3.32. 기탁금 수입	0	3.32. 기탁금 지출	0	3.32. 기탁금 수입	0
3.33. 기탁금 수입	0	3.33. 기탁금 지출	0	3.33. 기탁금 수입	0	3.33. 기탁금 지출	0	3.33. 기탁금 수입	0
3.34. 기탁금 수입	0	3.34. 기탁금 지출	0	3.34. 기탁금 수입	0	3.34. 기탁금 지출	0	3.34. 기탁금 수입	0
3.35. 기탁금 수입	0	3.35. 기탁금 지출	0	3.35. 기탁금 수입	0	3.35. 기탁금 지출	0	3.35. 기탁금 수입	0
3.36. 기탁금 수입	0	3.36. 기탁금 지출	0	3.36. 기탁금 수입	0	3.36. 기탁금 지출	0	3.36. 기탁금 수입	0
3.37. 기탁금 수입	0	3.37. 기탁금 지출	0	3.37. 기탁금 수입	0	3.37. 기탁금 지출	0	3.37. 기탁금 수입	0
3.38. 기탁금 수입	0	3.38. 기탁금 지출	0	3.38. 기탁금 수입	0	3.38. 기탁금 지출	0	3.38. 기탁금 수입	0
3.39. 기탁금 수입	0	3.39. 기탁금 지출	0	3.39. 기탁금 수입	0	3.39. 기탁금 지출	0	3.39. 기탁금 수입	0
3.40. 기탁금 수입	0	3.40. 기탁금 지출	0	3.40. 기탁금 수입	0	3.40. 기탁금 지출	0	3.40. 기탁금 수입	0
3.41. 기탁금 수입	0	3.41. 기탁금 지출	0	3.41. 기탁금 수입	0	3.41. 기탁금 지출	0	3.41. 기탁금 수입	0
3.42. 기탁금 수입	0	3.42. 기탁금 지출	0	3.42. 기탁금 수입	0	3.42. 기탁금 지출	0	3.42. 기탁금 수입	0
3.43. 기탁금 수입	0	3.43. 기탁금 지출	0	3.43. 기탁금 수입	0	3.43. 기탁금 지출	0	3.43. 기탁금 수입	0
3.44. 기탁금 수입	0	3.44. 기탁금 지출	0	3.44. 기탁금 수입	0	3.44. 기탁금 지출	0	3.44. 기탁금 수입	0
3.45. 기탁금 수입	0	3.45. 기탁금 지출	0	3.45. 기탁금 수입	0	3.45. 기탁금 지출	0	3.45. 기탁금 수입	0
3.46. 기탁금 수입	0	3.46. 기탁금 지출	0	3.46. 기탁금 수입	0	3.46. 기탁금 지출	0	3.46. 기탁금 수입	0
3.47. 기탁금 수입	0	3.47. 기탁금 지출	0	3.47. 기탁금 수입	0	3.47. 기탁금 지출	0	3.47. 기탁금 수입	0
3.48. 기탁금 수입	0	3.48. 기탁금 지출	0	3.48. 기탁금 수입	0	3.48. 기탁금 지출	0	3.48. 기탁금 수입	0
3.49. 기탁금 수입	0	3.49. 기탁금 지출	0	3.49. 기탁금 수입	0	3.49. 기탁금 지출	0	3.49. 기탁금 수입	0
3.50. 기탁금 수입	0	3.50. 기탁금 지출	0	3.50. 기탁금 수입	0	3.50. 기탁금 지출	0	3.50. 기탁금 수입	0
3.51. 기탁금 수입	0	3.51. 기탁금 지출	0	3.51. 기탁금 수입	0	3.51. 기탁금 지출	0	3.51. 기탁금 수입	0
3.52. 기탁금 수입	0	3.52. 기탁금 지출	0	3.52. 기탁금 수입	0	3.52. 기탁금 지출	0	3.52. 기탁금 수입	0
3.53. 기탁금 수입	0	3.53. 기탁금 지출	0	3.53. 기탁금 수입	0	3.53. 기탁금 지출	0	3.53. 기탁금 수입	0
3.54. 기탁금 수입	0	3.54. 기탁금 지출	0	3.54. 기탁금 수입	0	3.54. 기탁금 지출	0	3.54. 기탁금 수입	0
3.55.									